

# 영남지방 지명에 관한 연구\*

—창녕군, 봉화군, 남해군의 경우—

박 태 화\*\*

본 연구는 영남지방의 지리적 성격이 상이한 창녕군, 봉화군, 남해군의 촌락명을 분석하였다. 지명의 명명은 인간의 환경지각의 결과이고, 또 지명에는 그 당시의 문화가 각인되어 있다고 본다. 그래서 지명이 포함하고 있는 주요 지리적 개념, 지명의 어구조, 개념구성의 결합관계 등을 구명하여 지역차를 고찰한 것이다. 첫째 지리학의 개념별로 보면 산지지역인 봉화군은 자연에서, 평야지역인 창녕군과 도서지역인 남해군은 인문에서 인식한 촌락명이 상대적으로 많아 지역차를 보인다. 둘째 지명 어구조의 전·후어에서 전어는 주로 작명으로 사용된 고유명인데, 촌락의 문화경관, 위치, 변천을 설명하고 있다. 후어는 지명을 분류하는 유형명으로 촌락의 자연환경, 촌락 공동체 표현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셋째 개념 구성은 봉화군은 자연 그대로, 창녕군은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 과정, 남해군은 상호작용의 결과가 인식, 명명되어 역시 상이한 지역성을 보이고 있다.

주요어 : 고유명, 유형명, 지리적 개념, 어구조

## 1. 서론

### 1) 연구목적

장소의 내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멸되어 진다. 그러나 장소의 이름 즉 지명은 특정한 위치 내지는 공간을 지칭하는 고유명사로서 당시의 사고, 의식구조, 전통과 습관, 문화와 경제 등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즉 지명은 토지에 붙여진 명칭으로 토지를 구별하기 위하여 붙인 부호이다. 그러나 지명은 단순한 토지의 부호가 아니라 학문적인 고찰에 따라 다양한 의미가 복합적으로 내포되어 있다.

첫째, 지명의 명명을 환경지각의 결과로서 보는 견해이다. 즉 지명은 장소가 갖는 특성과 인간의 의식이 결합되어 형성됨으로서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의미의 결합체라 하였다(金蓮玉, 1985, 322).

그래서 지명은 명명의 주체로서 인간의 의식, 객체로서 장소가 가지는 특성과 결합되어 구성되어 있다(鄭鎭元, 1982, 59~79)

둘째, 지명을 문화가 각인(culture imprint)된 고유명사로 보는 견해이다. 지명은 종종 한 지역에서 생성 소멸된 문화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다. 그래서 Stewart, G. R.이 지명은 지역문화의 내용을 간직할 뿐만 아니라 지명의 분석에 의해서 과거 문화경관을 재구성 할 수 있다고 보고, 이러한 지명은 고유명(specific or given name)과 유형명(generic or classifying name)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다(De Blij, H. J., 1983, 233~234). 고유명은 지역의 특성과 관계되어 주어진 이름이고, 유형명은 지리적 환경과 관련되어 분류된 이름이다.

셋째, 지명도 언어로 간주하여 그 어원과 음운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견해이다. 대부분의 지명은 오랜 기간에 걸쳐 존재하고, 특히 고지명은 언어의

\* 이 논문은 1997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공모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기층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南榮佑, 1996, 116~117). 이러한 지명어는 대부분 '基本 + 基語'의 복합어소 구조로 되어 있으나 단일어소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지명어를 과거부터 고찰하여 내포하고 있는 그 의미를 밝혀 내는 것이다.

이상에서 지명은 환경지각적, 문화각인적, 어원적 등 어느 측면에서나 지명어에 포함된 의미는 대체로 2개의 구성요소의 복합체로 되어 있다. 즉 지명의 구조는 의미의 복합체로서 합성어적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리학에서 지명연구는 대체로 2가지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하나는 지명어가 의미의 합성어로 구성된 것과 관계 없이 단순히 지명을 관찰하고, 비교하여 유형을 구분한 연구가 있고(元學喜, 1982, 304~313), 또 자연지명과 인문지명으로 2대별하여 한 연구가 있다(金玉子, 1992). 다른 하나는 지명어의 구성어소를 형태소(形態素)별로 나누어 분석하는 것이다. 즉 지명의 합성어적 구조에서 거의 자립형태인 접두어와 의존형태로서 후접하는 접미어로 나누어 고찰한 것이다(정진원, 1982, 59~79).

특히 촌락명은 인간이 공동생활을 하는 촌락의 종합적인 표현으로서, 촌락은 단순한 가옥의 집합이 아니라 하나의 소우주(microcosm)로서(Tuan, Yi-Fu, 273), 지역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단위생활권이다. 그러므로 촌락은 지표에 기초한 장소, 공간, 환경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지리적 세계를 구성한다. 따라서 촌락명에는 지리적 주요개념을 포함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촌락명을 지리적 주요개념별로 분류하여,

첫째, 상호 대비되는 평야지역, 산지지역, 도서지역 등 3개 지역의 지역차에 의한 영남지방 촌락명의 지역성을 구명하고자 한다.

둘째, 영남지방 촌락명에 내재하고 있는 환경인식, 문화적인 각인, 역사적 변천 등의 지리적인 지역차를 밝힌다.

셋째, 합성어 어소의 결합관계에 의한 주요 개념의 상관관계를 구명하고, 그 어소를 지리적 주요개념별로 분류함으로써 촌락명의 명명에 작용한 지역적인 요인을 밝힌다.

## 2) 연구방법과 자료

지명에는 촌락명, 산지명, 하천명, 평야명 등 다수 있겠으나 그 중 촌락명이 가장 많고, 촌락이 단위생활권인 즉 지역으로서, '장소-인간'의 결합의 근원적인 곳으로 직접적인 환경경험을 비롯하여 역사성과 문화적인 특색을 포함한 제 사상의 누적에 의한 지리적인 명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촌락명으로 한정하였다.

촌락명에는 법정동명, 행정동명, 자연촌락명 등이 있으나, 지역성을 가장 잘 반영할 것으로 볼 수 있는 자연촌락명<sup>1)</sup> 대상으로 했다. 그래서 자연촌락명이 가장 많이 나오는 「1 : 50,000」 지형도의 촌락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대상 촌락은 창녕군 14개 읍·면 455개 자연촌락<sup>2)</sup>, 봉화군 10개 읍·면 552 자연촌락<sup>3)</sup>, 남해군 10개 읍·면 275 자연촌락이다<sup>4)</sup>.

촌락명의 구조는 전술한 바와 같이 특정 장소에 주어진 고유명과 지리적 환경과 관련되어 분류된 유형명으로 구분하여, 지리학의 주요개념<sup>5)</sup>을 ㉠ 자연과 인간, ㉡ 공간관계, ㉢ 분포, ㉣ 지역, ㉤ 변천 별로 분류하여 고유명과 유형명의 수와 지역적 분포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또 촌락명에서 지리적인 성격이 상이한 지역차를 구체적으로 해명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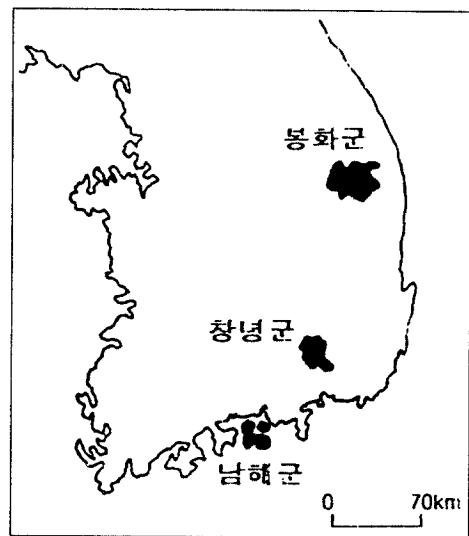


그림 1. 연구지역의 행정구역

기 위하여 고유명과 유형명의 주요 지리적 개념별 결합관계에서 파악하였다. 이것은 촌락 성격의 지역상(지리적 성격)과 시대상(역사적 성격)을 밝혀 줄 뿐만 아니라 2대 성격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문화적인 성격의 지역차도 밝혀 줄 것이다.

### 3) 연구지역의 성격

#### (1) 지리적 환경

연구지역인 창녕군과, 봉화군, 남해군은 <그림 1>에서 보면 영남지방에 위치하고 있다. 창녕군은 낙동강 중류의 벼농사 중심의 평야지역이고, 봉화군은 낙동강 상류의 밭농사 중심의 산지지역이고, 남해군은 영남의 남서부에 있는 도서지방이다.

창녕군은 해발고도와 관련하여 촌락의 분포를 <표 1>에서 보면 촌락의 89.5%인 544개가 100m 미만, 8.4%인 51개가 100~199m에 위치하고 있으며, 400m이상에 위치하고 있는 촌락은 하나도 없다. 군의 서부 저지대이고, 낙동강에 접하고 있는 유어면에는 우포, 번개늪, 장척호 등 크고 작은 배후저습지가 있다. 동부는 비교적 높은 산지이다.

표 1. 연구지역의 고도별 촌락수

구 분	창녕군(%)	봉화군(%)	남해군(%)
100m미만	544(89.5)	-	330(94.8)
100~199m	51(8.4)	35(5.0)	17(4.9)
200~299m	9(1.5)	194(27.4)	-
300~399m	6(0.6)	245(34.6)	1(0.3)
400~499m	-	127(17.9)	-
500m이상	-	107(15.1)	-
합 계	608	708	348

자료 : 1/50,000 지형도에서 조사

창녕군의 토지이용을 <표 2>에서 보면 임야가 55.0%로 봉화군보다 적고, 경지는 29.0%가 되어 가장 많다. 그래서 농업 생산량에서 곡류를 보면 미곡은 20,148톤, 맥류는 2,555톤으로 미곡이 압도적으로 많은 논농사 중심이다.

봉화군은 해발고도와 관련하여 촌락의 분포를 보면 촌락의 34.6%인 245개가 300~399m, 27.4

%인 194개가 200~299m에 위치하고 있으며, 500m이상에 위치하고 있는 촌락도 15.1%인 107개의 촌락이 있으나 100m 미만의 촌락은 하나도 없다.

봉화군의 토지이용을 보면 82.8%가 임야이고, 논은 4.0%에 불과하다. 그래서 고추 5,296톤과 배추 6,993톤을 생산하는 밭농사 중심이다.

남해군은 해발고도와 관련하여 촌락의 분포를 보면 촌락의 94.8%인 330개가 100m 미만이고, 200m 이상에는 촌락이 거의 전무하여 대부분의 촌락이 해안저지에 위치한다.

표 2. 연구지역 토지이용과 농작물 생산량

구 분	창녕군(%)	봉화군(%)	남해군(%)	
토지 이용 (km <sup>2</sup> )	총면적	532.78	1201.04	356.89
	임야	292.07(55.0)	994.03(82.8)	241.66(67.7)
	논	97.73(18.0)	48.30(4.0)	49.74(13.9)
	밭	60.75(11.0)	90.42(7.5)	32.71(9.2)
농작물 생산량 (ton)	미곡	20,148	16,128	20,833
	맥류	2,555	3	1,976
	고추	1,151	5,298	-
	마늘	12,210	-	27,963
	양파	92,235	-	-
	배추	-	6,993	-

자료 : 창녕군, 봉화군, 남해군 통계연보(1996년)

남해군의 토지이용을 보면 임야가 67.7%가 되어 많고, 경지도 23.1%가 되어 비교적 많은 편이다. 그래서 미곡 20,833톤과 마늘 27,963톤을 생산하는 논농사 중심이다.

#### (2) 촌락의 입지

어떠한 장소를 선정하여 입지하는 가의 문제는 촌락연구의 출발점이다. 일반적으로 촌락의 입지조건은 자연적인 지형적 조건과 인문적인 교통적 조건 등 여러 요인을 고찰 할 수 있겠으나, 본 연구지역의 「1/50,000」지형도에서 관찰이 용이한 지형적인 입지조건을 기준으로 산록입지, 하곡입지, 평야촌락, 임하촌락,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고찰코자 한다.

##### ① 산록입지

산록입지는 산과 평야가 접하는 곳에 위치한 촌

## 영남지방 지명에 관한 연구

락으로 우리 나라에서 가장 많은 촌락의 입지(약 50~60%)를 나타내고 있다. <표 3>에서 보면 창녕군은 47.0%, 봉화군은 28.5%, 남해군은 50.9% 촌락이 산록에 입지하여 전국 평균에 근접하고 있으나, 봉화군은 아주 적다. 대체로 산록입지 촌락은 평야에 인접하여 토지의 생산성이 높아 부촌을 이루고, 큰 촌락을 형성하고 있다. 또 비교적 이촌이 적고,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저명한 동족취락이 많아 한국농촌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표 3. 연구지역 촌락의 입지

구분	창녕군(%)	봉화군(%)	남해군(%)
산록	273(47.0)	202(28.5)	177(50.9)
하곡	189(32.5)	324(45.8)	16(4.6)
평야	79(13.6)	19(2.7)	15(4.3)
임하	40(6.9)	141(19.9)	3(0.8)
해안	-	-	137(39.4)
기타	-	22(3.1)	-
계	581(100.0)	708(100.0)	348(100.0)

자료 : 1/50,000 지명도에서 조사

### ② 하곡입지

하곡입지는 일반적으로 촌락이 좁은 산지 사이의 긴 하곡의 곡저에 위치하고 있다. 하곡입지는 창녕군이 32.5%, 봉화군은 45.8%, 남해군은 4.6%가 되어 봉화군이 월등히 많다. 창녕군은 주로 동부산지에 분포하고, 봉화군은 북부와 동부 등 높은 지역의 곡저에 주로 위치하고 있다. 이들 촌락은 경지와 일사량이 부족하고, 경지도 협소하여 농업생산이 적은 한촌으로 최근에는 이촌 현상에 의하여 부락이 쇠퇴하고 있다.

### ③ 평야입지

평야입지는 주로 논으로 이용되는 저지에 위치하고 있는데, 창녕군이 13.6%, 봉화군은 2.7%, 남해군은 4.3% 촌락이 있다. 창녕군이 월등히 많은데, 주로 낙동강 주변 저지대와 또 군의 중서부의 토평천과 계성천 주변의 범람원에 분포한다. 이들 촌락은 규모가 커서 일부는 면중심지 내지는 읍중심지로 발달하여 큰 취락을 형성하여 도시적 취락으로 변모하고 있다.

### ④ 임하 및 해안입지

임하입지는 강이나 하천변에 위치하고 있는데, 창녕군은 6.9%, 봉화군은 19.9%, 남해군은 0.4% 촌락으로 봉화군이 월등히 많다. 봉화군은 낙동강 본류가 위치하고 있는 북동부, 내성천이 흐르는 봉화읍 등에 많다. 창녕군은 낙동강 변의 나루터와 그 주변의 소택지 등에 많다. 이들 임하촌락도 물을 건너는 나루터 등 교통과 관계가 있는 곳에 위치하여 주막 등 큰 취락으로 발달하고 있다. 남해군은 임하입지가 적는데 비하여 해안입지가 137개(39.4%)가 되어 아주 많다.

### ⑤ 기타입지

봉화군의 경우는 북부 산악지역의 산복에 위치한 촌락이 22개(3.1%)가 있다. 이들 촌락은 그 주변의 산지가 완만하여 발농사가 가능한 평탄면에 있거나 일부는 광산촌락이다. 평야의 경지가 부족한 봉화군은 강원도의 화전촌락과 같이 산지를 개간하여 발농사를 하는 산지촌으로 산촌(散村)을 형성하고 있다.

## 2. 촌락명의 지리적 개념별 분류

지리학의 기본개념인 자연과 인간<sup>6)</sup>(인문), 공간관계, 분포, 지역, 변천 등 5개의 개념을 <표 4>과 같이 지리학의 주요개념별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표 5~10>과 같이 자연촌락명의 고유명과 유형명으로 나누어 재 분류하였다. 그결과 지리학의 주요개념과의 관련을 보면 창녕군, 봉화군, 남해군 모두 자연 관련지명이 가장 많고, 다음은 인문 관련지명이다. 그러나 창녕군은 분포 관련지명, 봉화군과 남해군은 변천 관련지명이 가장 적다.

이상에서 자연과 인문, 즉 지리적 직접 환경과 관련한 촌락명이 창녕군은 58.8%, 봉화군은 69.5%, 남해군은 62.7%가 되어, 모두 충청북도의 76.1%보다 적다. 또 지리적 직접 환경에 연유한 지명 중 자연에 연유한 촌락명이 창녕군은 63.9%, 봉화군은 65.9%, 남해군은 60.6%가 되어, 모두 충청북도의 72.8%보다 적다(田京淑, 1979, 24). 그러나 국민학교 교과서 내의 지명은 인문지명이 69.3%(신준영, 1988, 57), 외국의 교과서는 88.0%(정장호·신동선, 1995, 13)나 많이 사용되고 있다.

표 4. 연구지역 촌락명의 기본개념별 분류

구 분	자연과 인간			공간관계	분포	지역	변천	합계	
	자연	인문	소 계						
단 양 촌	고유명	150	137	287	97	34	-	37	455
	유형명	193	56	249	22	2	182	-	455
	소계	343	193	536	119	36	182	37	910*
	%	37.7	21.2	58.9	13.1	3.9	20.0	4.1	100.0
단 화 촌	고유명	245	170	415	61	40	4	32	552
	유형명	261	92	353	22	6	171	-	552
	소계	506	262	768	83	46	175	32	1104*
	%	45.8	23.7	69.5	7.5	4.2	15.9	2.9	100.0
단 해 촌	고유명	106	67	173	53	32	2	15	275
	유형명	103	69	172	20	4	79	-	275
	소계	209	136	345	73	36	81	15	550*
	%	38.0	24.7	62.7	13.3	6.6	14.7	2.7	100.0
합 계		1058	591	1,649	275	118	438	84	2564*
	%	41.3	23.0	64.3	10.7	4.6	17.1	3.3	100.0

\* 소계의 합계는 촌락명이 고유명과 유형명으로 조사되어 2배수가 되어 있음

1) 자연

자연 관련 촌락명을 보면 <표 5>, 지형, 기상, 토양, 육수, 생물 등에 연유되어 있다. 연구지역 전체는 지형(49.7%), 기상(7.7%), 토양(7.8%), 육수(11.2%), 생물(23.6%)로서 지형이 가장 많고, 기상이 가장 적다. 지형의 경우 충청남도의 85.0%(토양 포함)보다 적고, 반면 생물은 충청남도의 2.4%보다 더 많다(李桓坤, 1986, 16~25).

창녕군은 <표 5>에서 보면 지형 189개(55.2%), 기상 31개(9.0%), 토양 30개(8.8%), 육수 30개(8.8%), 생물 63개(18.4%)가 되어 지형에 연유한 촌락명이 가장 많고, 토양과 육수에 연유한 촌락명은 적다.

첫째, 지형에 연유한 촌락명은 ① 谷(골·실<sup>7)</sup>)이 106개가 되어 많고, 그 중 유형명이 102개가 되어 고유명보다 많다. 즉 계성면 '일매곡', '화곡', 고암면 '미실', 남지읍 '내곡', 대지면 '장창골', 대합면 '성지골', 도천면 '가마골', 부곡면 '항골', 성산면 '용골', 영산면 '사리골', 유어면 '가마실', 이방면 '새실', 장마면 '초곡', 창녕읍 '옥정골' 등은 유형명이

고, 남지읍 '골안', 이방면 '골담', '골마' 등은 고유명이다. ② 山(덕·등·미·피·두들)이 50개가 되어 많고, 유형명이 39개 다수이다. 계성면 '봉산', 고암면 '괴산', 길곡면 '동산', 남지읍 '용산', 대지면 '창산', 대합면 '옥산', 부곡면 '구산', 성산면 '대미', 영산면 '새능', 유어면 '아랫등대', 이방면 '잣피', '모래등', 창녕읍 '학산' 등은 유형명이고, 고암면 '덕산', 남지읍 '매진', 도천면 '덕실', 영산면 '남산밀', 장마면 '산지', 창녕읍 '회산동' 등은 고유명이다. ③ 들(野·坪·原)은 12개인데, 유형명이 8개가 되어 많고, 대합면 '평지', 유어면 '들마' 등은 고유명이다.

둘째, 기상에서 연유된 촌락명은 ① 日·月·雲이 18개가 되어 많고, 고유명이 14개가 되어 다수이다. 계성면 '달촌', 고암면 '월미', 대합면 '운무동', 영산면 '운봉', 창녕읍 '월명촌' 등은 고유명이고, 고암면 '신월'은 유형명이다. ② 陽은 6개, 陰은 3개로 모두 고유명이다. 성산면 '양지마을', 이방면 '양동', 남지읍 '음촌', 영산면 '음달마을' 등이 있다.

셋째, 토양에서 연유된 촌락명은 ① 바위(岩)·

표 5. 자연 관련 촌락명의 고유·유형명별 분류

구 분	지형				기상				토양			옥수			생물		합계	
	곡	산	들	기타	양	음	일·월	기타	沙·泥	岩·石	색	내·강	못·샘	기타	동물	식물		
창녕군	고유명	4	11	4	11	6	3	14	4	6	10	6	2	3	3	21	42	150
	유형명	102	39	8	10	-	-	4	-	-	8	-	15	5	2	-	-	193
	소계	106	50	12	21	6	3	18	4	6	18	6	17	8	5	21	42	343
	%	30.9	4.6	3.5	6.1	1.7	0.9	5.3	1.2	1.7	5.3	1.7	5.0	2.3	1.5	6.1	12.2	100.0
봉화군	고유명	9	14	7	24	7	3	5	4	9	9	6	9	9	10	33	87	245
	유형명	154	17	18	9	1	-	5	-	-	15	-	17	8	8	1	8	261
	소계	163	31	25	33	8	3	10	4	9	24	6	26	17	18	34	95	506
	%	32.2	6.1	4.9	6.5	1.6	0.6	2.0	0.8	1.8	4.7	1.2	5.1	3.4	3.6	6.7	18.8	100.0
남해군	고유명	3	6	3	9	8	3	5	3	6	3	1	2	2	5	7	40	106
	유형명	27	18	4	15	3	1	1	1	-	4	-	10	4	4	-	11	103
	소계	30	24	7	24	11	4	6	4	6	7	1	12	6	9	7	51	209
	%	14.3	11.5	3.3	11.5	5.3	1.9	2.9	1.9	2.9	3.3	0.5	5.7	2.9	4.3	3.4	24.4	100.0
합계	299	105	44	78	25	10	34	12	21	49	13	55	31	32	62	188	1058	
%	28.3	9.9	4.2	7.4	2.4	0.9	3.2	1.1	2.0	4.6	1.2	5.2	2.9	3.0	5.9	17.8	100.0	

돌(石)이 18개가 되어 많고, 고유명이 10개 이다. 대지면 '돌말리', 성산면 '석정', 장마면 '돌뚝', 창녕읍 '석현' 등은 고유명이고, 계성면 '복암', 고암면 '큰바위', 남지읍 '학암', 이방면 '소바위' 등은 유형명이다. ② 모래(沙)·진흙(泥)은 6개로 모두 고유명인데, 길곡면 '사등', 도천면 '토고개', 창녕읍 '이남동' 등이 있다. ③ 토양색은 6개가 고유명인데, 대합면 '오색이', 영산면 '붉은동' 등이 있다.

넷째, 옥수에서 연유된 촌락명은 ① 내(川)·江·溪가 17개로 다수 이고, 유형명이 15개로 많다. 계성면 '광계', 고암면 '우천', 길곡면 '하내', 유어면 '신천', 이방면 '장천', 장마면 '상강', '하유' 등은 유형명이고, 남지읍 '수계', 대합면 '수장'은 고유명이다. ② 池·泉·井은 8개 인데, 유형명이 5개로 많다. 남지읍 '하담', 창녕읍 '학천' 등은 유형명이고, 부곡면 '못안', 창녕읍 '옥정골'은 고유명이다.

다섯째, 생물은 ① 식물이 42개로 동물 21개 보다 많고, 모두 고유명이다. 계성면 '뽕나무걸', 고암면 '감나무밑', 길곡면 '정자나무밑', 남지읍 '칠현', 대지면 '귀동(괴목나무)', 대합면 '유산', 도천면 '송진', 부곡면 '대밭골', 성산면 '정촌(정자나무)', 영산면 '사리골', 유어면 '배나무골', 이방면

'갓피', 장마면 '초곡', 창녕읍 '솔터' 등이 있다. ② 계성면 '봉산', 남지읍 '황새목', '홍정', 부곡면 '학동', 성산면 '웅골', 영산면 '작포', '새능', 이방면 '소바위', 장마면 '앵곡', 창녕읍 '곰터', 등은 동물에서 연유하였다.

봉화군은 <표 5>에서 보면, 지형 252개(9.8%), 기상 25개(4.9%), 토양 39개(7.7%), 옥수 61개(12.1%), 생물 129개(25.5%)가 되어 지형에서 연유한 촌락명이 가장 많고, 기상에서 연유한 촌락명이 적다.

첫째, 지형에서 연유한 촌락명은 ① 谷(골·실)이 163개로 가장 많고, 유형명이 154개 다수이다. 명호면 '보리골', 물야면 '거렁골(개울이 있는 골)', 법전면 '삼의실(묘가 3개 있는 골)', 봉성면 '버드실', 봉화읍 '면소골', 석포면 '밤실', 상운면 '깊우실', 춘양면 '새실' 등은 유형명이고, 명호면 '골말', 봉성면 '골마', 춘양면 '곡내' 등은 고유명이다. ② 山(미·뫼·등·덕·두들)은 31개 인데, 유형명이 17개이다. 명호면 '매능', 물야면 '방두들(들판보다 높은 곳)', 소천면 '중봉', 재산면 '용구' 등은 유형명이고, 명호면 '매대(매봉산의 대지)', 물야면 '산운', 상운면 '산정', 소천면 '산막' 등은 고유명이

다. ③ 들(野·坪·原)은 25개로 유형명이 18개이다. 명호면 '갈평', 물야면 '뒷들', 상운면 '원들' 등은 유형명이고, 봉화읍 '들목', 상운면 '평천', 춘양면 '평촌' 등은 고유명이다.

둘째, 기상에서 연유한 촌락명은 ① 日·月·雲이 10개로 많고, 고유명과 유형명이 각 5개이다. 명호면 '운산', 물야면 '월계' 등은 고유명이고, 물야면 '산운', 상운면 '상토(해가 포함)', 소천면 '담월' 등은 유형명이다. ② 陽은 8개로 많고, 고유명이 7개이다. 명호면 '양지마', 법전면의 '양지말' 등은 고유명이고, 재산면 '남양'은 유형명이다. ③ 陰은 3개로 모두 고유명이다. 물야면 '음지마', 봉화읍 '읍평' 이 있다.

셋째, 토양에서 연유한 촌락명은 ① 바위(岩), 돌(石)이 24개로 많고, 유형명이 15개이다. 명호면 '광석', 봉성면 '고지바위', 봉화읍 '뱀바위', 석포면 '월암', 소천면 '갓바위', 춘양면 '흑석' 등은 유형명이고, 법전면 '돌다리', 석포면 '석포', 춘양면 '돌고개' 는 고유명이다. ② 모래(沙)·진흙(泥)은 9개로 모두 고유명이다. 물야면 '사골', 법전면 '모래골', 재산면 '흙목', '진두들' 등이 있다. ③ 토양색은 6개 모두 고유명이다. 명호면 '황애', 물야면 '흰병이', 봉화읍 '붉은애이', 재산면 '검바위' 등 다양한 색으로 명명되었다.

넷째, 육수에서 연유한 촌락명은 ① 내(川)·江·溪가 26개로 다수인데, 유형명이 17개이다. 명호면 '갈천', 물야면의 '월계', 법전면 '부트내(높은 곳)', 소천면 '거내', 재산면 '모천' 등은 유형명이고, 명호면 '시내마', 물야면 '거렁골', 소천면 '개내' 등은 고유명이다. ② 池·泉·井으로 17개인데, 고유명이 9개이다. 물야면 '샘실', 봉화읍 '못골' 등은 고유명이고, 명호면 '늘못(높은 소 형상)', 봉성면 '은행정', 상운면 '임당' 등은 유형명이다.

다섯째, 생물에서 연유한 촌락명은 ① 식물이 95개로 동물보다 많고, 고유명이 87개로 다수이다. 명호면 '울곡', 물야면 '술안', 법전면 '시드물(신나무가 있는 우물)', 봉성면 '대추정', 봉화읍 '쑥쟁이', 석포면 '백천(갓나무)', 상운면 '가시골', 소천면 '도화동', 재산면 '물푸레골', 춘양면 '꿀티(풀고개)' 등은 고유명이고, 법전면 '안노림', 상운면 '설매' 는 유형명이다. ② 동물은 34개인데, 고유명

이 33개 다수이다. 명호면 '황새마을', 법전면 '노루골', 봉화읍 '학이골', 석포면 '오마을', 상운면 '까치골', 소천면 '매현', 재산면 '묘골', 춘양면 '황새골' 등은 고유명이고, 봉성면 '활개미'는 유형명이다.

남해군은 <표 5>에서 보면, 지형 85개(40.7%), 기상 25개(12.0%), 토양 14개(6.7%), 육수 27개(12.9%), 생물 58개(27.8%)가 되어, 지형에서 연유한 촌락명이 가장 많고, 토양에서 연유한 촌락명이 적다.

첫째, 지형에 연유한 촌락명은 ① 谷(골·실)이 30개 다수 이고, 유형명이 27개이다. 고현면 '대곡', 남면 '두곡', 서면 '금곡', 삼동면 '장곡', 설천면 '월곡', 이동면 '홍골', 창선면 '신골' 등은 유형명이고, 남해읍 '곡내'는 고유명이다. ② 山(덕·등·미·뢰·두들)은 24개인데, 유형명이 18개이다. 고현면 '앞산', 남해읍 '동산', 삼동면 '내산', 설천면 '술등', 창선면 '물미' 등은 유형명이고, 남면 '덕월', 창선면 '언포(언덕)'은 고유명이다. ③ 들(坪·野·原)은 7개인데, 유형명이 4개이다. 서면의 '높은 들'은 유형명이고, 설천면 '평지'는 고유명이다.

둘째, 기상에서 연유한 촌락명은 ① 陽이 11인데, 고유명이 8개이다. 고현면, 남면, 남해읍의 '양지'는 고유명이고, 설천면 '남양'은 유형명이다. ② 日, 月, 雲은 6개인데, 5개가 고유명이다. 고현면 '달실', 남면 '운암', 남해읍 '토촌(해가 토한다)' 등은 고유명이고, 남면 '덕월'은 유형명이다. ③ 陰은 4개인데, 고유명이 3개이다. 고현면과 남해읍의 '음지'는 고유명이고, 이동면 '초음'은 유형명이다.

셋째, 토양에서 연유한 촌락명은 ① 바위(岩)·돌(石)이 7개인데, 유형명이 4개이다. 고현면 '배바위', 남면 '운암' 은 유형명이고, 남면 '석교', 삼동면 '돌고개'는 고유명이다. ② 모래(沙)·진흙(泥)이 6개로 모두 고유명이다. 남면 '사촌', 창선면 '토성', 미조면 '사향' 등이 있다. ③ 토양색은 1개인데, 상주면 '금포(검은 사빈)'가 고유명이다.

넷째, 육수에서 연유한 촌락명은 ① 내(川)·江·溪가 12개 다수이고, 유형명이 10개이다. 고현면 '대계', 삼동면 '화천', 서면 '고분강(굽은 강)' 등은 유형명이고, 삼동면 '강촌'은 고유명이다. ② 池·泉·井은 6개인데, 유형명이다. 창선면 '냉천', 육천은 유형명이고, 고현면 '천둥'은 고유명이다.

영남지방 지명에 관한 연구

다섯째, 생물은 ① 식물이 51개로 동물보다 많고, 고유명이 40개이다. 남면 '죽전', 남해읍 '유림', 서면 '자작골', 미조면 '노구(갈대)', 삼동면 '갈고개', 설천면 '바자나무골', 이동면 '등마을', 창선면 '송전' 등은 고유명이고, 남면 '선구(잣나무 숲)', 창선면 '하죽'은 유형명이다. ② 동물은 7개로 모두 고유명이다. 남해읍 '봉성', 삼동면 '노루목', 이동면 '새목' 등이 있다.

이상 자연 관련 촌락명은, 창녕군은 기상에서 日·月, 토양에서 岩·石, 토양색, 동물에서 虎, 식물에서 대나무, 버드나무 등에서 인식한 지명이 많다. 봉화군은 지형에서 谷, 들, 육수에서 木·샘, 동물에서 황새, 식물에서 소나무, 밤나무, 칩 등에서 인식한 지명이 다수이다. 남해군은 지형에서 山, 기상에서 陽, 토양에서 沙, 육수에서 内, 동물에서 鳳, 식물에서 대나무, 소나무 등에서 인식한 지명이 다수이다. 특히 남해군은 다른 두 지역에 비해 동물보다는 식물에서 인식한 지명이 많아서 지역차를 보인다. 또 토양색에 있어서 창녕군 보다 봉화군이 더 다양한 색의 지명이 있다. 자연에서 연유한 촌락명은 분류명으로 볼 수 있는 유형명이 다수이고, 지형과 육수에 관련된 지명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남해군만은 작명으로 볼 수 있는 고유

명이 다수인데, 식물 분포가 많은데 기인하고 있다.

2) 인문

인문 관련 촌락명을 보면 <표 6>, 인문시설, 토지이용, 교통관계, 종교관계, 신체관계 등에 주로 연유되어 있다. 연구지역 전체는 인문시설(26.7%), 토지이용(5.1%), 교통관계(24.2%), 종교관계(32.8%), 신체(2.0%)로서 종교관계가 가장 많고, 신체가 가장 적다. 충청남도의 경우에는 인문시설 45.4%, 토지이용 25.3%, 교통관계 9.4%, 종교관계 9.8%가 되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李桓坤, 1986, 31~42).

창녕군은 <표 6>에서 보면, 인문시설 59개(30.6%), 토지이용 8개(4.1%), 교통관계 41개(21.2%), 종교관계 72개(37.3%), 신체관계 2개(1.0%)가 되어 종교관계에 연유한 촌락명이 가장 많고, 신체 관련 촌락명이 적다.

첫째, 인문시설에 연유한 촌락명은 ① 院·倉·館이 15개인데, 고유명이 10개이다. 대지면 '원동', 계성면의 '관동', 유어면 '마수원', 장마면 '관곡' 등은 고유명이고, 유어면 '진창', 이방면 '현창' 등은

표 6. 인문 관련 촌락명의 고유·유형명별 분류

구 분	인 문 시 설						토지이용		교 통 관 계				종 교 관 계				신 체	기 타	합 계		
	院·倉	店·幕	향교	亭·橋	城	기타	논	밭	津·浦	목	고개	街路	기타	풍수	유교	불교				미신	
창녕군	고유명	10	9	11	2	1	11	3	2	3	-	1	-	-	47	10	8	6	2	11	137
	유형명	5	1	1	6	-	2	-	3	17	5	11	3	1	-	-	1	-	-	-	56
	소계	15	10	12	8	1	13	3	5	20	5	12	3	1	47	10	9	6	2	11	193
	%	7.8	5.1	6.2	4.1	0.5	6.7	1.6	2.6	10.4	2.6	6.2	1.6	0.5	24.4	5.2	4.7	3.1	1.0	5.7	100.0
봉화군	고유명	10	6	5	5	1	13	1	1	4	1	2	4	6	53	13	11	5	2	27	170
	유형명	1	11	-	8	2	4	-	10	3	7	27	7	1	3	1	1	1	2	3	92
	소계	11	17	5	13	3	17	1	11	7	8	29	11	7	56	14	12	6	4	30	262
	%	4.2	6.5	1.9	4.9	1.1	6.5	0.4	4.2	2.7	3.0	11.1	4.2	2.7	21.4	5.3	4.6	2.3	1.5	11.5	100.0
남해군	고유명	6	1	1	1	5	6	1	-	2	1	-	2	2	25	1	2	2	2	7	67
	유형명	1	2	-	7	2	1	-	9	14	9	9	1	-	3	-	1	-	4	6	69
	소계	7	3	1	8	7	7	1	9	16	10	9	3	2	28	1	3	2	6	13	136
	%	5.2	2.2	0.7	5.9	5.1	5.1	0.7	6.6	11.8	7.4	6.6	2.2	1.5	20.6	0.7	2.2	1.5	4.4	9.6	100.0
합 계	33	30	8	29	11	37	5	25	42	23	50	17	11	131	25	24	14	12	54	591	
%	5.6	5.1	3.1	4.9	1.9	6.2	0.8	4.2	7.1	3.9	8.5	2.9	1.9	22.2	4.2	4.1	2.4	2.0	9.1	100.0	



유형명이다. ② 재실·서원·향교가 12개인데, 고유명이 11개 다수이다. 대지면 '서재골', 부곡면 '서부마(서원마의 오기)', 창녕읍 '향교마을', '교동' 등은 고유명이고, 장마면 '왕거재실'은 유형명이다. ③ 店·場·幕은 10개인데, 고유명이 9개이다. 길곡면 '장터', 부곡면 '점촌', 유어면 '점빠안', 이방면 '점의골' 등은 고유명이고, 길곡면 '동점'은 유형명이다. ④ 亭·橋가 8개이고, 유형명이 6개이다. 남지읍 '마산정', 대지면 '효정', 성산면 '강정', 창녕읍 '오리정'은 유형명이고, 이방면 '양정골', 창녕읍 '교하는' 고유명이다. ⑤ 城은 1개인데, 영산면 '성내'가 고유명이다.

둘째, 토지이용에 연유한 촌락명은 ① 밭(田)이 5개로 논보다 많고, 유형명이 3개이다. 대지면 '신전', 부곡면 '마밭' 등은 유형명이고, 영산면 '방리(발리의 오기)'는 고유명이다. ② 논(畓, 禾)은 3개 모두 고유명이고, 계성면 '화곡', 성산면 '논실'이 있다.

셋째, 교통에 연유한 촌락명은 ① 津·浦가 20개로 많고, 유형명이 17개로 다수이다. 남지읍 '기민개(두지역 사이에 있는 浦)', '창날(倉 나루)', 대합면 '월포', 도천면 '쇠나리', 영산면 '연포', 유어면 '세진', 이방면 '막날리(마지막 나루)' 등은 유형명이고, 남지읍 '박진나루가'는 고유명이다. ② 고개(峴·嶺·峯)는 12개인데, 유형명이 11개이다. 계성면 '속새고개', 대합면 '월령', 영산면 '가현', 창녕읍 '비들재' 등은 유형명이고, 영산면 '인산넙(인산고개 너머)'은 고유명이다. ③ 목(項)은 5개인데, 모두 유형명이다. 남지읍 '황새목', 이방면 '소목'이 있다. ④ 가로는 3개로 모두 유형명이다. 길곡면과 남지면의 '삼거리'가 있다.

넷째, 종교관계에 연유한 촌락명은 ① 풍수관계 지명이 47개로 많으며, 모두 고유명이다. 계성면 '자래덤(자라형상의 바위)', 고압면 '우천(소형상의 내)', 길곡면 '증산(시리형상의 산)', 남지읍 '옥산', 대지면 '용소', 대합면 '와룡동', 도천면 '치이실(칭이형상의 골)', 부곡면 '구산', 영산면 '가현(까치고개)', 유어면 '마수원(말머리 형상)', 이방면 '잡어실(고기가 노는 형국)', '곰자골(곰자 형국)', 장마면 '양수동(염소 형상)', '어봉골(고기 형국)', 창녕읍 '퇴천(토끼 형국)' 등이 있다. ② 유교관계 지명

이 10개로 다수이고, 모두 고유명이다. 남지읍 '소자미(효자 마을)', 대지면 '효정', '예동', 대지면 '팔문동', 부곡면 '성인골' 등이 있다. ③ 불교관계 지명이 9개이며, 고유명이 8개이다. 계성면 '사리', 도천면 '부처곡', 창녕읍 '불당골' 등은 고유명이고, 유어면 '구연화'는 유형명이다. ④ 미신관계는 6개로 고유명이다. 대합면 '당상골', 성산면 '굽마을(굿마을의 오기)'이 그 예이다.

다섯째, 신체관계는 2개인데, 모두 고유명이다. 남지읍 '두곡'이 있다.

봉화군은 <표 6>에서 보면, 인문시설 66개(25.2%), 토지이용 12개(4.6%), 교통관계 62개(23.7%), 종교관계 88개(33.6%), 신체관계 4개(1.5%)로 종교관련 촌락명이 많고, 신체관련 촌락명이 적다.

첫째, 인문시설에 연유한 촌락명은 ① 店·場·幕이 17개로 많고, 유형명이 11개이다. 몰야면 '사기점', 상운면 '마장', 춘양면 '새주막' 등은 유형명이고, 명호면 '점골', 몰야면 '장터', 법전면 '막골'은 고유명이다. ② 亭·橋는 13개인데, 유형명이 8개이다. 몰야면 '너다리(넓적한 다리)', 봉성면 '오르정(오르막에 정자)'은 유형명이고, 명호면 '다릿골', 재산면 '정자마'는 고유명이다. ③ 院·倉·官은 11개인데, 고유명이 10개로 많다. 명호면 '관곡', 몰야면 '창마', 봉화읍 '원구' 등은 고유명이고, 상운면 '돌능'은 유형명이다. ④ 향교는 5개로 모두 고유명이다. 봉화읍 '서원말', '교촌'이 있다. ⑤ 城은 3개인데, 유형명이 2개이다. 명호면 '산성'은 유형명이고, 명호면 '성두들'은 고유명이다.

둘째, 토지이용에서 연유한 촌락명은 ① 밭(田)이 11개로 논(畓)보다 많은데, 유형명이 10개이다. 명호면 '구우밭(소가 누운 형상)', 소천면 '사전'은 유형명이고, 봉화읍 '개따밭골(계단 밭)'은 고유명이다. ② 논(畓)은 1개로, 재산면 '논골'이 고유명이다.

셋째, 교통에 연유한 촌락명은 ① 고개(峴·티·峯)가 29개로 많고, 유형명이 27개로 다수이다. 명호면 '참나무재', 몰야면 '솔고개', 봉화읍 '구현', 춘양면 '대티' 등은 유형명이고, 재산면 '갯마'는 고유명이다. ② 가로는 11개인데, 7개가 유형명이다. 명호면 '삼거리', 법전면 '수충거리(입구에

위치), 소천면 '세거리' 등은 유형명이고, 몰야면 '거리마', 봉화읍 '도촌'은 고유명이다. ③ 목(項)은 8개인데, 7개가 유형명이다. 재산면 '흙목', 춘양면 '장항' 등은 유형명이고, 춘양면 '항이동'은 고유명이다. ④ 津·浦는 7개인데, 4개가 고유명이다. 명호면 '개구석(浦의 구석진 곳)', 봉성면 '늪실', 소천면 '갯마을' 등은 고유명이고, 명호면 '비나리(비석나루)'는 유형명이다.

넷째, 종교관계에 연유한 촌락명은 ① 풍수관계 지명이 56개로 많고, 53개가 고유명이다. 명호면 '주곡(거미형상의 곡)', 몰야면 '용곡', 법전면 '불미골(풀무 형상)', 봉성면 '용머리', 봉화읍 '귀이골(구속상의 골)', 석포면 '시루봉', 나래기(학이 날아가는 형상), 상운면 '오시래미(까마귀집 형상의 마을)', 재산면 '갯바위', 춘양면 '나막신골' 등은 고유명이고, 상운면 '작은패별(별이 걸린 형상)'은 유형명이다. ② 유교관계 지명은 14개인데, 고유명이 13개이다. 몰야면 '덕계골', 법전면 '성자미(효자마을)', 봉성면 '덕마을' 등은 고유명이고, 재산면 '웃공이(공리)'는 유형명이다. ③ 불교관계 지명은 12개인데, 11개가 고유명이다. 봉성면 '미륵골', 재산면 '염주골', 춘양면 '절곡'은 고유명이고, 법전면 '맛질(맛 좋은 과일과 작은 절)'은 유형명이다. ④ 미신관계 지명은 6개인데, 5개가 고유명이다. 몰야면 '원당골', 석포면 '성황골'은 고유명이고, 상운면 '원당'은 유형명이다.

남해군은 <표 6>에서 보면, 인문시설 33개(24.3%), 토지이용 10개(7.4%), 교통관계 40개(29.4%), 종교관계 34개(25.0%), 신체관계 6개(4.4%)로 종교관계 촌락명이 많고, 신체관계 촌락명이 적다.

첫째, 인문시설에 연유한 촌락명은 ① 亭·橋가 8개인데, 유형명이 7개이다. 남면 '석교', 미조면 '송정' 등은 유형명이고, 이동면 '교량말'은 고유명이다. ② 院·倉이 7개인데, 6개가 고유명이다. 창선면 '원촌'은 고유명이고, '해창'은 유형명이다. ③ 城은 7개인데, 5개가 고유명이다. 고현면 '성산', 남면의 '성내', 설천면 '성안' 등은 고유명이고, 창선면 '토성'은 유형명이다. ④ 店·幕이 3개로 유형명이 2개이다. 삼동면의 '은점'은 유형명이고, 이동면의 '소막골'은 고유명이다. ⑤ 향교(서원)는 1개인

데, 삼동면의 '서당터'가 고유명이다.

둘째, 토지이용에 연유한 촌락명은 ① 밭(田)이 9개로 논(畓)보다 많으며, 모두 유형명이다. 고현면 '화전', 남해읍 '봉전', 상주면 '금전' 등이 있다. ② 논(畓)은 1개로 미조면 '답하'가 고유명이다.

셋째, 교통에 연유한 촌락명은 ① 津·浦가 16개인데, 유형명이 14개이다. 고현면 '갑송개', 남면 '월포', 남해읍 '광포', 창선면 '장포' 등은 유형명이고, 고현면 '포상'은 고유명이다. ② 목(項)은 10개인데, 유형명이 9개이다. 서면 '장항', 삼동면 '노루목', 창선면 '단항(학의 목에 붉은 댕기)' 등은 유형명이고, 남면 '항촌'은 고유명이다. ③ 고개(峴·티·재)는 9개로 모두 유형명이다. 남면 '배티', 서면 '중현', 삼동면 '돌고개가 있다. ④ 가로는 3개인데, 2개가 고유명이다. 남면 '노상촌'은 고유명이고, 남면 '삼거리'는 유형명이다.

넷째, 종교에 연유한 촌락명은 ① 풍수관계 지명이 28개로 많고, 고유명이 25개 다수이다. 남해읍 '마산', 상주면 '금곡', 미조면 '설리(용이 서린 형국)', 삼동면 '화암(꽃형상의 바위)', 설천면 '복골(호랑이가 엮드린 형국)', 이동면 '청룡촌' 등은 고유명이고, 창선면 '오용'은 유형명이다. ② 불교관계 지명이 3개로 고유명이 2개이다. 서면 '연죽'은 고유명이고, 고현면 '대사'는 유형명이다. ③ 미신관계 지명은 2개인데, 모두 고유명이다. 창선면 '당리'가 있다. ④ 유교관계 지명은 1개 뿐이며, 창선면 '보천(신선이 목욕한 샘)'이 고유명이다.

다섯째, 신체에 연유한 지명은 6개이며, 유형명이 4개로 많다. 고현면 '언머리', 이동면 '광두'은 유형명이고, 남면 '손목'은 고유명이다.

이상 인문관련 촌락명에서, 창녕군은 인문시설 院·倉, 향교, 토지이용 논, 종교관계 풍수, 불교, 미신 등에서 상대적으로 다수이고, 봉화군은 인문시설 店·幕, 교통관계 고개, 가로, 종교관계 유교 등에서 상대적으로 다수이다. 그리고 남해군에서는 인문시설 亭·橋, 토지이용 밭, 교통관계 津·浦, 목(項), 신체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다수여서 지역차를 보이고 있다. 인문에 연유한 촌락명은 자연에 연유한 촌락명과는 반대로 작명으로 볼 수 있는 고유명이 다수이고, 그 중에서도 인문시설과 종교 관련 촌락명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교통관련 촌락

명에서는 반대로 유형명이 다수이다. 특히 남해군의 경우에는 유형명이 다소 많아 다른 두 지역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 3) 공간관계

공간관계 관련 촌락명을 보면 <표 7>, 수평위치, 수직위치, 방위관계에 주로 연유되어 있다. 연구지역 전체는 수평위치(36.7%), 수직위치(48.7%), 방위관계(14.6%)로 수직위치가 가장 많다. 충청남도의 경우에는 수평위치 44.1%, 수직위치 34.6%가 되어 수평위치가 가장 많이 나타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李桓坤, 1986, 8~44).

창녕군은 <표 7>에서 보면 수평위치 44개(36.4%), 수직위치 67개(56.3%), 방위관계 8개(6.6%)가 되어 수직위치에 연유한 촌락명이 가장 많다.

많고, 모두 고유명이다. 길곡면 '뒷마을', 창녕읍 '후포' 등이고, ③ 前은 6개가 모두 고유명인데, 계성면 '전평', 영산면 '앞고개' 등이다. ④ 外는 4개로 모두 고유명인데, 길곡면 '외동', 남지읍 '바깥동' 등이다.

둘째, 수직위치에 연유한 촌락명은 ① 下가 33개로 다수인데, 고유명이 23개이다. 고암면 '아랫마을', 남지읍 '미곡', 유어면 '아랫등대', 장마면 '하유', 창녕읍 '하동' 등은 고유명이고, 고암면 '월미', 길곡면 '정자나무밑', 남지읍 '월하' 등은 유형명이다. ② 上은 21개인데, 고유명이 20개로 다수이다. 계성면 '상월', 고암면 '윗마을', 대지면 '웃담', 대화면 '상청암', 영산면 '상촌', 유어면 '윗골', 장마면 '상강' 등은 고유명이고, 길곡면 '월상'은 유형명이다. ③ 中이 15개인데, 14개가 고유명이다. 계성면 '중마을', 길곡면 '기민개', 성산면 '중촌', 이방

표 7. 공간관계 관련 촌락명의 고유·유형명별 분류

구 분	수평위치					수직위치					방위관계				합계	
	內	外	前	後	기타	上	中	下	高	低	東	西	南	北		
창녕군	고유명	10	4	6	8	8	19	14	22	-	-	2	3	-	1	97
	유형명	6	-	-	-	2	1	1	10	-	-	-	-	2	-	22
	소계	16	4	6	8	10	20	15	32	-	-	2	3	2	1	119
	%	13.5	3.4	5.0	6.7	8.4	16.8	12.6	26.9			1.7	2.5	1.7	0.8	100.0
봉화군	고유명	6	4	1	6	4	8	13	7	5	2	2	1	1	1	61
	유형명	10	-	1	-	4	-	-	5	1	-	-	-	-	1	22
	소계	16	4	2	6	8	8	13	12	6	2	2	1	1	2	83
	%	19.3	4.9	2.4	7.2	9.6	9.6	15.7	14.5	7.2	2.4	2.4	1.2	1.2	2.4	100.0
남해군	고유명	4	1	1	-	2	6	10	3	2	-	9	7	5	3	53
	유형명	5	1	-	1	6	3	-	1	-	1	-	-	2	-	20
	소계	9	2	1	1	8	9	10	4	2	1	9	7	7	3	73
	%	12.3	2.7	1.4	1.4	11.0	12.3	13.7	5.5	2.7	1.4	12.3	9.6	9.6	4.1	100.0
합 계	41	10	9	15	26	37	38	48	8	3	13	11	10	6	275	
%	14.9	3.6	3.3	5.4	9.5	13.5	13.8	17.5	2.9	1.1	4.7	4.0	3.6	2.2	100.0	

첫째, 수평위치에 연유한 촌락명은 ① 內가 16개로 많고, 고유명이 10개이다. 계성면 '안골', '내동', 고암면 '내곡', 대화면 '안담', 성산면 '안마실', 유어면 '내촌' 등은 고유명이고, 고암면 '골안', 영산면 '성내' 등은 유형명이다. 다음은 ② 後가 8개로

면 '셋담', '중마' 등은 고유명이고, 창녕읍 '돌뜸(돌뜸)'은 유형명이다.

셋째, 방위관계 촌락명은 ① 西가 3개인데, 모두 고유명이다. 고암면 '서암'이 있다. ② 東과 南은 각 2개씩인데, 東은 고유명, 南은 유형명이다.

길곡면 '동산', 남지읍 '시남'이 그 것이다. ③ 北은 1개로 고유명인데, 계성면 '북암'이 있다.

봉화군은 <표 7>에서 보면, 수평위치 36개(43.4%), 수직위치 41개(49.4%), 방위관계 6개(7.2%)가 되어 수직위치에 연유한 촌락명이 가장 많다.

첫째, 수평위치에 연유한 촌락명은 ① 內가 16개로 많고, 유형명이 10개이다. 몰야면 '솔안', 법전면 '보안', 소천면 '산내' 등은 유형명이고, 명호면 '안산', 몰야면 '안말' 등은 고유명이다. ② 後는 6개로 모두 고유명이다. 명호면 '후곡', 법전면 '뒷들', 상운면 '뒤실' 등이 있다. ③ 外는 4개로 모두 고유명인데, 몰야면 '박마'이다. ④ 前은 2개로 고유명과 유형명이 각 1개인데, 몰야면 '앞결(앞내)'은 고유명이고, 소천면 '역전'은 유형명이다.

둘째, 수직위치에 연유한 촌락명은 ① 下가 12개로 많고, 고유명이 7개이다. 명호면 '아랫재', 상운면 '하반송(소나무 아래)' 등은 고유명이고, 법전면 '물알(물 아래)', 봉화읍 '보밀' 등은 유형명이다. ② 中은 13개인데, 모두 고유명이다. 명호면 '중마', 몰야면 '셋말', 소천면 '간지', 춘양면 '중마을' 등이다. ③ 上은 8개인데, 모두 고유명이다. 몰야면 '윗재', 상운면 '상토'가 있다. ④ 高는 6개인데, 고유명이 5개이다. 명호면 '고계', 봉화읍 '높은배리(배리는 고개)'는 고유명이고, 재산면 '골고지'는 유형명이다. ⑤ 低는 2개인데, 모두 고유명이다. 봉화읍 '바래미(하상보다 낮은 마을<sup>8)</sup>)'가 예이다.

셋째, 방위관계 촌락명으로는 ① 東이 2개로 모두 고유명이다. 재산면 '동다리'이다. ② 北은 2개인데, 고유명과 유형명이 각 1개이다. 상운면 '북곡'은 고유명이고, 몰야면 '지북'은 유형명이다. ③ 西와 南은 각 1개인데, 모두 고유명이다. 몰야면 '서리'는 고유명이 西와, 재산면 '남양'은 고유명이 南과 관련 지명이다.

남해군은 <표 7>에서 보면, 수평위치 21개(28.8%), 수직위치 26개(35.6%), 방위관계 26개(35.6%)가 되어 수직위치와 방위관련 촌락명이 많다.

첫째, 수평위치에서 연유한 촌락명은 ① 內가 9개인데, 유형명이 5개이다. 고현면 '골안', 남면 '성내' 등은 유형명이고, 고현면 '안마을', 설천면 '내곡' 등은 고유명이다. ② 外는 2개인데, 고유명과 유형명이 각 1개이다. 고현면 '바갈마을'은 고유명

이고, 몰야면 '성외'는 유형명이다. ③ 前과 後는 각 1개인데, 고현면 '앞산'은 고유명이고, 상주면 '성대(성의 뒤)'는 유형명이다.

둘째, 수직위치에 연유한 촌락명은 ① 中이 10개로 많고, 모두 고유명이다. 고현면 '중간말', '가운데말', 남해읍 '중촌' 등이 있다. ② 上은 9개인데, 고유명이 6개이다. 고현면 '윗말', 서면 '상남' 등은 고유명이고, 서면 '남상'은 유형명이다. ③ 下는 4개인데, 3개가 고유명이다. 설천면 '아랫말', 창선면 '하죽' 등은 고유명이고, 미조면의 '답하'는 유형명이다. ④ 高는 2개로 모두 고유명인데, 서면과 설천면의 '높은들'이 예이다. ⑤ 低는 1개인데, 창선면 '당저'가 유형명이다.

셋째, 방위관계 촌락명으로는 ① 東이 9개로 많고, 모두 고유명이다. 남면 '동촌', 남해읍 '동산', 설천면 '동홍' 등이 있다. ② 西는 7개인데, 모두 고유명이다. 남면 '서촌', 서면 '서호'가 있다. ③ 南이 7개인데, 고유명이 5개로 많다. 남해읍 '남산', 서면 '남상' 등은 고유명이고, 미조면 '송남'은 유형명이다. ④ 北은 3개로 모두 고유명이고, 남해읍 '북변'이 있다.

이상 공간관계에 연유한 촌락명은, 창녕군은 수평위치 前, 수직위치 上, 下에서 상대적으로 우세하고, 봉화군은 수평위치 內, 外, 後, 수직위치 中, 高에서 상대적으로 우세하다. 그러나 수평위치의 경우 두 지역 모두 外보다는 內가, 前보다는 後가 더 많아서 한국인의 폐쇄적 환경지각을 잘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수직위치의 경우 창녕군은 下, 봉화군은 中이 우세하여 상방선호의 일반적 경향(鄭鎭元, 1982, pp.64~75)이 적다. 특히 남해군은 방위관계 東, 西, 南, 北 관련 촌락명이 많아 두 지역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간관계에 연유한 지명은 作名으로 볼 수 있는 고유명의 비율이 아주 높다.

#### 4) 분포

분포 관련 촌락명을 보면 <표 8>, 연구지역 전체는 大(53.4%), 小(7.6%), 長(20.4%), 短(0.8%), 數(14.4%) 등으로 大가 가장 많다. 충청남도에서 大에 연유한 지명이 61.7%를 나타내는 것과

표 8. 분포 관련 촌락명의 고유·유형명별 분류

구 분		大	小	長	短	數	기타	합계
창녕군	고유명	18	-	10	-	6	-	34
	유형명	1	-	1	-	-	-	2
	소계	19	-	11	-	6	-	36
	%	52.8		30.5		16.7		100.0
봉화군	고유명	26	4	4	-	6	-	40
	유형명	2	-	3	-	1	-	6
	소계	28	4	7	-	7	-	46
	%	60.9	8.7	15.2		15.2		100.0
남해군	고유명	14	5	6	1	3	3	32
	유형명	2	-	-	-	1	1	4
	소계	16	5	6	1	4	3	36
	%	44.4	13.9	16.7	2.8	11.1	11.1	100.0
합 계		63	9	24	1	17	4	118
%		53.4	7.6	20.4	0.8	14.4	3.4	100.0

거의 비슷하다(李桓坤, 1986, 22).

창녕군은 大(한·洪·넓은·巨) 19개(52.8%), 長(진·가는·깊은·深·細) 11개(30.5%), 數 6개(16.7%)가 되어 大에 연유한 촌락명이 가장 많다. ① 大에서 연유한 촌락명은 고유명이 19개 중 18개로 많다. 계성면 '광계', 고암면 '큰바위', 길곡면 '하내', 남지읍 '한실', 대합면 '대동', 성산면 '큰마을', 창녕읍 '넓은골' 등은 고유명이고, 대합면 '마당만리'는 유형명이다. ② 長에서 연유한 촌락명은 11개 중 고유명이 10개이다. 영산면 '진등', 이방면 '장천', 창녕읍 '심명골' 등은 고유명이고, 대합면 '수장'은 유형명이다. ③ 숫자(數)에 연유한 촌락명은 6개 모두 고유명이고, 길곡면, 남지읍의 '삼거리', 창녕읍 '오리정' 등이 있다.

봉화군은 大 28개(60.9%), 小 4개(8.7%), 長 7개(15.2%), 數 7개(15.2%)가 되어 大에 연유한 촌락명이 많다. ① 大에서 연유한 촌락명은 28개 중 고유명이 26개로 많다. 명호면 '한티(큰 고개)', 법전면 '큰말', 봉성면 '대골', 봉화읍 '큰골', 소천면 '한골', 춘양면 '거실' 등은 고유명이고, 재산면 '머너무(물이 자주 넘침)'는 유형명이다. ② 小에서 연유한 지명은 4개 모두 고유명인데, 봉화읍 '소지', 소천면 '소현' 등 이다. ③ 長에서 연유한 지명

은 7개 중 고유명이 4개이다. 몰야면 '진골(긴 골짜기)', 상운면 '깊우실(깊은 골)' 등은 고유명이고, 명호면 '상보라(보라는 비단천 같이 길다)' 등은 유형명이다. ④ 숫자(數)에 연유한 지명은 7개 중 고유명이 6개이다. 명호면 '쌍현', 법전면 '삼거리', 소천면 '세거리' 등은 고유명이고, 재산면 '여퇴(여우가 물러감)'는 유형명이다.

남해군은 大 16개(44.4%), 小 5개(13.9%), 長 6개(16.7%), 短 1개(2.8%), 數 4개(11.1%)로 大에 연유한 촌락명이 많다. ① 大에서 연유한 촌락명은 16개 중 고유명이 14개로 많다. 고현면 '대곡', 남해읍 '광포', 창선면 '광천' 등은 고유명이고, 창선면 '서대'는 유형명이다. ② 小는 5개 모두 고유명인데, 상주면 '소량(작은 교량)', 창선면 '소벽'이 있다. ③ 長은 6개 모두 고유명인데, 남해읍 '심천', 삼동면 '장곡', '가는골', 창선면 '장포' 등이 있다. ④ 短은 고유명인데, 창선면 '천포'가 있다. ⑤ 數는 4개 중 3개가 고유명인데, 남면 '삼거리', 창선면 '오용'은 고유명이고, 미조면 '노구'는 유형명이다.

이상 분포에 연유한 촌락명은 창녕군은 大, 長, 봉화군은 大, 數에서, 남해군은 小, 短에서 많이 있다. 특히 大와 長에서 연유한 촌락명이 압도적으

영남지방 지명에 관한 연구

로 많은 것은 지명 작명에서 내(川)를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생각하려는 자아 중심적 의식(鄭鎭元, 1982, 66)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분포에 연유한 지명은 주로 인문, 공간관계의 개념과 같이 作名으로 볼 수 있는 고유명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

5) 지역

지역 관련 촌락명을 보면 <표 9>, 연구지역 전체는 洞(18.0%), 村(16.9%), 里(4.8%), 마을(9.6%), 마·말(18.2%), 담·터(16.7%)로 마·말이 많고, 里가 적다. 충청남도의 경우에는 말이 32.4%로 가장 많고, 동네가 14.2%로 적게 나타나는 것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sup>9)</sup>

동, 등이 있다. ② 村은 고암면 '만촌', 남지읍 '중촌', 도천면 '효우촌', 부곡면 '점촌', 영산면 '백촌', 유어면 '내촌' 등이 있다. ③ 里는 계성면 '사리', 도천면 '모리' 등이 있다. ④ 마을은 고암면 '중마을', 길곡면 '벌마을', 도천면 '아랫마을', 성산면 '읍지마을', 영산면 '새마을', 창녕읍 '지경마을' 등이 있다. ⑤ 마·말은 도천면 '정말', 유어면 '새마', 부곡면의 '굴말', 이방면 '골마', 장마면 '건너마' 등이 있다. ⑥ 담·터(담·뜸)는 계성면 '공지기', 고암면 '중대', 길곡면 '장터', 대지면 '학계(학기의 오기)', 대합면 '대터', 도천면 '바갈담', 부곡면 '새담', 장마면 '안땀' 등이 있다.

봉화군은 洞 18개(10.3%), 村 14개(8.0%), 里 12개(6.9%), 마을 16개(9.2%), 마·말 55개(31.

표 9. 지역 관련 촌락명의 고유·유형명별 분류

구 분		洞	村	里	마을	마.말	담.터	기타	합계
창녕군	고유명	-	-	-	-	-	-	-	-
	유형명	53	24	6	21	19	43	16	182
	소계	53	24	6	21	19	43	16	182
	%	29.1	13.2	3.3	11.6	10.4	23.6	8.8	100.0
봉화군	고유명	-	-	-	1	1	1	1	4
	유형명	18	14	12	15	54	26	32	171
	소계	18	14	12	16	55	27	33	175
	%	10.3	8.0	6.9	9.2	31.4	15.4	5.1	100.0
남해군	고유명	1	-	-	-	-	-	1	2
	유형명	7	36	3	5	6	3	19	79
	소계	8	36	3	5	6	3	20	81
	%	9.9	44.4	3.7	6.2	7.4	3.7	24.7	100.0
합 계		79	74	21	42	80	73	59	438
%		18.0	16.9	4.8	9.6	18.2	16.7	10.3	100.0

창녕군은 洞 53개(29.1%), 村 24개(13.2%), 里 6개(3.3%), 마을 21개(11.6%), 마·말 19개(10.4%), 담·터 43개(23.6%)로 洞이 많고, 里가 적다. 이들 지역관련 지명은 모두 유형명이다. ① 洞에 연유한 촌락명은 계성면 '새동네', 고암면 '갈동', 길곡면 '아동', 남지읍 '본동', '바갈동', 대지면 '관동', 대합면 '운무동', 부곡면 '학동', 성산면 '구리동', 영산면 '덕동', 유어면 '불노동', 이방면 '유

4%), 담·터 27개(15.4%)로 마·말이 많고, 里가 적다. 지역관계 지명은 유형명이 171개(97.7%) 다수이다. ① 洞에 연유한 촌락명은 모두 유형명인데, 명호면의 '수동', 봉화읍 '왕동', 석포면 '암기동', 소천면 '도화동', 재산면 '옥동', 춘양면 '약수동' 등이 있다. ② 村은 명호면 '우촌', 봉화읍 '도촌', 상운면 '신촌', 소천면 '역촌', 춘양면 '평촌' 등이 있다. ③ 里는 몰야면 '서리', 봉화읍 '올리', 소

천면 '중리', 재산면 '신타리', 춘양면 '소라리' 등이 있다. ④ 마을에서 연유한 촌락명은 16개 중 1개가 고유명이다. 명호면 '황새마을', 법전면 '새마을', 상운면 '오마을', 소천면 '골마을', 재산면 '큰마을', 춘양면 '중마을' 등은 유형명이고, 법전면 '마그내'는 고유명이다. ⑤ 마·말은 명호면 '중마', 물야면 '안말', 법전면 '양지말', 봉성면 '골마', 봉화읍 '서원말', 상운면 '새마', 소천면 '학교말', 재산면 '두들마', 춘양면 '현말' 등은 유형명이고, 법전면 '어로말거리'는 고유명이다. ⑥ 담·터는 명호면 '새터', 물야면 '장터', 법전면 '옥천터', 봉화읍 '신기', 석포면 '나래기', 상운면 '도기', 소천면 '큰터', 춘양면 '황기' 등은 유형명이고, 상운면 '덧골'은 고유명이다.

남해군은 洞 8개(9.9%), 村 36개(44.4%), 里 3개(3.7%), 마을 5개(6.2%), 마·말 6개(7.4%), 담·터 3개(3.7%)로 村이 많고, 里, 담·터가 적다. 지역관련 지명은 유형명이 79개(97.5%) 다수이다. ① 洞은 8개 중 7개가 유형명인데, 고현면 '탑동', 설천면 '옥동' 등은 유형명이고, 삼동면 '동리'는 고유명이다. ② 村은 모두 유형명인데, 고현면 '신촌', 남면 '서촌', 남해읍 '중촌', 서면 '현촌', 상주면 '박촌', 삼동면 '강촌', 이동면 '양지촌', 창선면 '원촌' 등이 있다. ③ 里 역시 모두 유형명인데, 서면의 '중리', 삼동면 '동리'가 있다. ④ 마을은 모두 유형명인데, 고현면 '안마을', 남면 '새마을', 이동면 '등마을' 등이 있다. ⑤ 마·말은 역시 유형명인데, 고현면 '넘어말', '중간말', 이동면 '교량말' 등이 있다. ⑥ 담·터 모두 유형명인데, 고현면 '신기', 삼동면 '서당터'가 있다.

이상 지역에 연유한 촌락명은, 창녕군은 洞, 마을, 담·터에서, 봉화군은 里, 마·말에서, 남해군은 村에서 상대적으로 다수여서 지역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봉화군은 '~이'<sup>10)</sup>가 13.7%, 남해군은 '~도'<sup>11)</sup>가 6.2%나 분포하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이성하(李聖學, 1975, 55)은 지역관련 지명이 용어의 명확한 개념상의 구분 없이 서로 혼용되어 시대에 따라 또는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었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지역에서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지역에 연유한 지명은 분류명으로 볼 수 있는 유형명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

표 10. 변천관련 촌락명의 고유·유형명별 분류

구분		新	舊	元	本	합계
창녕군	고유명	32	3	1	1	37
	유형명	-	-	-	-	-
	소계	32	3	1	1	37
	%	86.5	8.1	2.7	2.7	100.0
봉화군	고유명	26	3	2	1	32
	유형명	-	-	-	-	-
	소계	26	3	2	1	32
	%	81.3	9.4	6.2	3.1	100.0
남해군	고유명	13	-	-	2	15
	유형명	-	-	-	-	-
	소계	13	-	-	2	15
	%	86.7			13.3	100.0
합계		71	6	3	4	84
%		84.5	7.1	3.6	4.8	100.0

6) 변천

변천 관련 촌락명을 보면 <표 10>, 연구지역 전체는 新(84.5%), 舊(7.1%), 元(3.6%), 本(4.8%)으로 新이 가장 많다. 충청남도의 경우에도 新이 67.9%로 가장 많고, 舊 22.3%, 元 7.0%, 本 2.8%로 나타나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李桓坤, 1986, 19). 변천관계 촌락명은 3개군 모두 고유명이다.

창녕군은 新 32개(86.5%), 舊 3개(8.1%), 元 1개(2.7%), 本 1개(2.7%)로 新이 가장 많다. ① 新에 연유한 촌락명은 계성면 '새동네', 고압면 '신촌', 길곡면 '새각단', 남지읍 '새터', 대합면 '새담', 부곡면 '신촌' 등이 있고, ② 舊는 성산면 '구연화'가 있다. ③ 元에 관한 촌락명은 고압면 '원촌'이 있고, ④ 本은 남지읍 '본동'이 있다.

봉화군은 新 26개(81.3%), 舊 3개(9.4%), 元 2개(6.2%), 本 1개(3.1%)로 新이 많고, 本이 적다. ① 新에 연유한 촌락명은 명호면 '새터', 물야면 '새마을', 봉화읍 '신시장', 춘양면 '새주막' 등이 있다. ② 舊는 봉성면 '옛골', 춘양면 '고기가' 있다. ③ 元은 상운면 '원들'이 있고, ④ 本은 춘양면 '본소'가 있다.

## 영남지방 지명에 관한 연구

남해군은 新 13개(86.7%), 本 2개(13.3%)로 新이 가장 많다. ① 新에 연유한 촌락명은 고현면 '신촌', 남면 '새마을', 창선면 '신골' 등이 있다. ② 本은 삼동면 '본부락'이 있다.

이상 변천에 연유한 촌락명은, 창녕군은 新, 봉화군은 舊, 元에서, 남해군은 新, 本에서 다수이다. 변천에 연유한 지명은 공간관계, 분포에서 연유한 지명과 아주 유사하여 작명으로 볼 수 있는 고유명만이 있다. 특히 변천개념에서 지명은 촌락 형성과 관계하여 후천적인 작명이고, 어구조에서 앞에 위치하여 고유명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1. 자연관련 촌락명의 지리적 개념의 구성 (%)

구분 지역	자연-자연	자연-인문	자연-공간	자연-분포	자연-지역	자연-변천	합 계
창녕군	50(35.0)	26(18.2)	12(8.3)	1(0.7)	54(37.8)	-	143(100.0)
봉화군	120(49.4)	42(17.3)	13(5.4)	3(1.2)	65(26.7)	-	243(100.0)
남해군	46(43.4)	31(29.3)	5(4.7)	3(2.8)	21(19.8)	-	106(100.0)
합 계	216(43.9)	99(20.1)	30(6.1)	7(1.4)	140(28.5)	-	492(100.0)

### 3. 촌락명의 지리적 개념별 구성

촌락명의 구성에서 특정 장소에 주어진 고유명을 중심으로 지리적 환경과 관련되어 분류된 유형명과 결합관계를 지리적 개념별로 그 구성을 보면 표 11~16과 같다.

#### 1) 자연 관련 촌락명

창녕군의 자연관련 촌락명은 143개인데 그 중 고유명과 유형명 모두가 자연과 관련된 순수 자연 촌락명은 50개, 35%가 되어 3개 군에서 가장 적다. <표 11>에서 지리적 개념별 구성을 보면, ① '자연-자연'의 구성은 고암면 '사암(모래+바위)', 남지읍 '민두르미(지형+山)', 대합면 '때방골(식물+谷)', 성산면 '운봉(기상+山)', 유어면 '배나무골', 창녕읍 '鶴川'이 있다. 이들 촌락은 낙동강 변의 곡창지대인 도천면의 덕곡천 부근, 비슬산 서북사면에 위치한 성산면에서 가장 많다. 그 외 ② '자연-지역'의 구성(37.8%)은 계성면 '명리(기상+里)',

고암면 '갈동(식물+洞)', 남지읍 '덕동(지형+洞)', 대지면 '石洞', 대합면 '정말(토양색+말)', 도천면 '柳村', 부곡면 '양지마을', 영산면 '鶴洞', 이방면 '골담(谷+담)', 창녕읍 '정자나무길' 등이 있다. 이들 촌락은 화왕산 북서사면에 위치하고 있는 창녕읍과 성산면에서 다수 보인다. ③ '자연-인문'의 구성(18.2%)은 계성면 '속새고개', 남지읍 '황새목(동물+項)', 도천면 '쇠나리(식물+津)', 영산면 '월령(기상+고개)', 창녕읍 '石峴' 등이 있다. 이들 촌락은 남동부의 영산면과 도천면에서 많다. ④ '자연-공간관계'의 구성(8.3%)은 고암면 '감나무밀', 남지

읍 '골안(谷+內)', 성산면 '못안', 장마면 '돌탑(石+中)' 등이 있다. ⑤ '자연-분포'의 구성(0.7%)은 대합면의 '水長'이 있다.

봉화군의 자연관련 촌락명은 243개인데 그 중 고유명과 유형명 모두가 자연과 관련된 순수 자연 촌락명은 120개, 49.4%가 되어 3개 군에서 가장 많다. <표 11>에서 보면, ① '자연-자연'의 구성은 명호면 '粟谷', 물야면 '沙谷', 법전면 '부트내(지형+谷)', 봉성면 '들목(野+項)', 봉화읍 '못골', 석포면 '月岩', 상운면 '배골(식물+谷)', 소천면 '두루미골', 재산면 '검바위(색+岩)', 춘양면 '샘골' 등이 있다. 이들 촌락은 명호면의 낙동강 유역과 재산면의 현동천 유역에서 다수 분포한다. 그 외 ② '자연-지역'의 구성(26.7%)은 명호면 '시내마(川+마)', 물야면 '양지마', 법전면 '황새말', 봉화읍 '귀말(지형+말)', 석포면 '샘터', 상운면 '골마', 소천면 '粟里', 재산면 '두들마(지형+마)', 춘양면 '평촌' 등이 있다. 이들 촌락은 법전면과 소천면(각 16.9%)에서 다수 분포한다. ③ '자연-인문'의 구성(17.3%)은 명호면 '참나무재', 물야면 '술고개(식물+고개)', 법전면 '돌다리', 봉성면 '오르정(지형+亭)',



소천면 '沙田', 재산면 '山幕', 춘양면 '대티(식물+고개)' 등이 있다. 이들 촌락은 소천면과 춘양면의 운곡천에서 다수 있다. ④ '자연-공간관계'의 구성(5.4%)은 물야면 '술안(식물+內)', 법전면 '물알(水+下)', 석포면 '골안' 등이 있다. ⑤ '자연-분포'의 구성(1.2%)은 재산면 '여퇴(동물+數)'가 있다.

남해군의 자연관련 촌락명은 106개인데 그 중 고유명과 유형명 모두가 자연과 관련된 순수 자연 촌락명은 46개, 43.4%가 되어 3개 군에서 중간이다. <표 11>에서 보면, ① '자연-자연'의 구성은 고현면 '달실(月+谷)', 남해읍 '竹山', 서면 '고분강(지형+江)', 삼동면 '골고랑(谷+川)', 설천면 '솔등(식물+山)', 이동면 '초양(식물+陽)', 창선면 '水山' 등이 있다. 이들 촌락은 삼동면, 설천면, 창선면의 해안가에서 다수 분포한다. 그 외 ② '자연-인문'의 구성(29.3%)은 고현면 '갑송개(식물+浦)', 남면 '石橋', 미조면 '松亭', 삼동면 '돌고개', 이동면 '새목(동물+項)', 창선면 '해창(水+倉)' 등이 있다. 이들 촌락은 창선면과 삼동면, 이동면의 해안가에서 다수 분포한다. ③ '자연-지역'의 구성(19.8%)은 고현면 '泉洞', 남면 '西村', 삼동면 '江村', 이동면 '등마을(식물+마을)' 등이 있다. 이들 촌락은 이동면의 다천천 주변과 남면의 오리천 부근에서 다수 있다. ④ '자연-공간관계'의 구성(4.7%)은 고현면 '골안', 미조면 '松南', 삼동면 '꽃안' 등이 있다. ⑤ '자연-분포'의 구성(2.8%)은 창선면 '곤유(동물+大)'가 있다.

이상 창녕군은 '자연-지역'이, 봉화군과 남해군은 '자연-자연'이 많아서 창녕군은 자연과 인간거주지와의 상호관계가, 봉화군과 남해군은 자연과 자연의 상호관계가 주로 인식되어 명명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창녕군의 '明里'는 마을이 생긴 후에 명명된 후천적 지명임을 의미하고, 봉화군의

'月峯', 남해군의 '竹山'은 촌락이 형성되기 전의 기존지명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2) 인문 관련 촌락명

창녕군의 인문관련 촌락명은 143개인데 그 중 고유명과 유형명 모두가 인문과 관련된 순수 인문 촌락명은 14개, 9.8%가 되어 3개 군에서 가장 적다. <표 12>에서 지리적 개념별 구성을 보면, ① '인문-인문'의 구성은 남지읍 '창날(倉+津)', 대지면 '효정(유교+亭)', 창녕읍 '왜고개(군사+고개)' 등이 있다. 그 외 ② '인문-자연'의 구성은 계성면 '일매곡(불교+谷)', 고암면 '소내(풍수+川)', 남지읍 '서재골', 대지면 '倉山', 대합면 '당상골(미신+谷)', 도천면 '부처곡', 성산면 '논실', 이방면 '점배안(店+지형)', 창녕읍 '초막골(시설+谷)' 등이 있다. 이들 촌락은 대지면의 토평천부근, 계성면의 계성천 부근에 다수 보인다. ③ '인문-지역'의 구성(29.4%)은 계성면 '관동(갯+동)', 길곡면 '장터', 대지면 '예동(유교+洞)', 도천면 '방죽결(시설+결)', 성산면 '방리(田+里)', 유어면 '둔터(군사+터)', 창녕읍 '향교마을' 등이 있다. 이들 촌락은 교통이 발달하여 인구가 많은 부곡면에서 다수 분포한다. ④ '인문-공간관계'의 구성(4.9%)은 남지읍 '박진나루가(津+수평)', 영산면 '城內', 창녕읍 '橋下' 등이 있다. ⑤ '인문-분포'의 구성(0.7%)은 대합면 '마당만리(시설+大)'가 있다.

봉화군의 인문관련 촌락명은 175개인데 그 중 고유명과 유형명 모두가 인문과 관련된 순수 인문 촌락명은 22개, 12.6%가 되어 3개 군에서 중간이다. <표 12>에서 보면, ① '인문-인문'의 구성(12.6%)은 명호면 '비나리(시설+津)', 물야면 '사기점', 봉성면 '용머리(풍수+신체)', 소천면 '선당

표 12. 인문관련 촌락명의 지리적 개념의 구성 (%)

구분 지역	인문- 자연	인문- 인문	인문- 공간	인문- 분포	인문- 지역	인문- 변천	합 계
창녕군	79(55.2)	14(9.8)	7(4.9)	1(0.7)	42(29.4)	-	143(100.0)
봉화군	85(48.6)	22(12.6)	7(4.0)	1(0.5)	60(34.3)	-	175(100.0)
남해군	27(38.6)	15(21.4)	8(11.4)	-	20(28.6)	-	70(100.0)
합 계	191(49.2)	51(13.1)	22(5.7)	2(0.5)	122(31.5)	-	388(100.0)

영남지방 지명에 관한 연구

(유교+亭) 등이 있다. 이들 촌락은 명호면 낙동강 유역에서 많다. 그 외 ② '인문-자연'의 구성(48.6%)은 명호면 '단젓골(불교+谷)', 몰야면 '구산(풍수+山)', 법전면 '막골(幕+谷)', 봉성면 '석기골(姓氏+谷)', 봉화읍 '용기골', 석포면 '성황골(미신+谷)', 상운면 '점골(店+谷)', 소천면 '갓바위(풍수+岩)', 재산면 '논골', 춘양면 '서당골' 등이 있다. 이들 촌락은 재산면에서 가장 많다. ③ '인문-지역'의 구성(34.3%)은 몰야면 '장터', 법전면 '성자말(유교+미)', 봉화읍 '교촌(향교+村)', 석포면 '승부동(군사+洞)', 소천면 '역촌', 춘양면 '서원촌' 등이 있다. 이들 촌락은 춘양면에서 가장 많다. ④ '인문-공간관계'의 구성(4.0%)은 봉화읍 '보밑(시설+下)', 소천면 '역전' 등이 있다. ⑤ '인문-분포'의 구성(0.5%)은 봉화읍의 '망도(시설+大)'가 있다.

남해군의 인문관련 촌락명은 70개인데, 그 중 고유명과 유형명 모두가 인문과 관련된 순수 인문 촌락명은 15개, 21.4%가 되어 3개 군에서 가장 많다. <표 12>에서 보면, ① '인문-인문'의 구성(21.4%)은 고현면 '언머리(시설+신체)', 남면 '배티(풍수+고개)', 서면의 '장항(풍수+項)' 등이 있다. 이들 촌락은 남면과 서면의 해안가에서 많다. 그 외 ② '인문-자연'의 구성(38.6%)은 고현면 '배바위(풍수+岩)', 남면 '선구(교통+식물)', 삼동면 '화암(풍수+岩)', 설천면 '불매골(풍수+谷)', 이동면 '애골(시설+곡)' 등이 있다. 이들 촌락은 설천면, 이동면의 해안가에서 분포한다. ③ '인문-지역'의 구성(28.6%)은 고현면 '탑동', 남면 '노상촌(가로+村)', 상주면 '김촌(성씨+村)', 삼동면 '서당터', 이동면 '교량말(橋+말)' 등이 있다. 이들 촌락은 상주면의 해안에서 다수 있다. ④ '인문-공간관계'의 구성(11.4%)은 남면 '성내', 설천면 '나릿가(교

통+수평)' 등이 있다.

이상 인문관련 촌락명의 지리적 개념의 구성은 모든 지역이 '인문-자연'이 가장 많아서, 지명의 命名에서 인간과 자연과의 상호관계를 잘 반영하고 있다. 그 다음 '인문-지역', '인문-인문' 인데 3개군 그 수가 비슷하여 지역차가 보이지 않는다. 즉 이들 촌락은 창녕군의 '서재골'이나 봉화군의 '서원말', 남해군의 '서당터' 등의 사례에서와 같이, 인문 시설이 생성한 후에 명명된 후천적 촌락명으로 볼 수 있다.

3) 공간관계 관련 촌락명

창녕군의 공간관련 촌락명은 98개인데, 그 중 고유명과 유형명 모두가 공간과 관련된 순수 공간 관계 촌락명은 하나도 없다. 촌락명의 지리적 개념 별 구성을 <표 13>에서 보면, ① '공간관계-지역'의 구성(56.1%)은 고암면 '중마을', '중대(中+터)', 길곡면 '건너마을', 남지읍 '바깥동', 대합면 '웃담', 도천면 '아랫마', 성산면 '안마실', 영산면 '뒷말(後+말)', 이방면 '셋담(中+담)', 장마면 '건너마', 창녕읍 '지경마을(위치+마을)' 등이 있다. 이들 촌락은 길곡면의 길곡천에 주로 있다. ② '공간관계-자연'의 구성(34.7%)은 계성면 '前坪', 고암면 '윗너들(上+지형)', 남지읍 '아랫골', 부곡면 '상청암(上+岩)', 성산면 '後川', 유어면 '윗등대(上+지형)', 장마면 '下江', 창녕읍 '넘어골(위치+谷)' 등이 있다. 이들 촌락은 평야지대인 장마면에서 다수 분포한다. ③ '공간관계-인문'의 구성(9.2%)은 계성면 '북암(北+종교)', 남지읍 '기민개(위치+浦)', 영산면 '앞고개(前+고개)' 등이 있다.

봉화군의 공간관련 촌락명은 56개인데, 그 중

표 13. 공간관계 관련 촌락명의 지리적 개념의 구성 (%)

구분 지역	공간-자연	공간-인문	공간-공간	공간-분포	공간-지역	공간-변천	합 계
창녕군	34(34.7)	9(9.2)	-	-	55(56.1)	-	98(100.0)
봉화군	27(48.2)	10(17.9)	1(1.8)	3(5.3)	15(26.8)	-	56(100.0)
남해군	13(27.1)	6(12.5)	7(14.6)	1(2.1)	21(43.7)	-	48(100.0)
합 계	74(36.6)	25(12.4)	8(4.0)	4(2.0)	91(45.0)	-	202(100.0)

고유명과 유형명 모두가 공간과 관련된 순수한 공간관계 촌락명은 단 1개(1.8%) 있다. <표 13>에서 보면, ① '공간관계-공간관계'의 구성은 명호면 '고계(高+위치)'가 있다. 그 외 ② '공간관계-자연'의 구성(48.2%)은 명호면 '안산', 몰야면 '뒷들', 법전면 '중간들(中+坪)', 상운면 '北谷', 재산면 '南陽', 춘양면 '상장암(上+岩)' 등이 있다. 이들은 주로 상운면에서 분포한다. ③ '공간관계-지역'의 구성(26.8%)은 명호면 '중마', 몰야면 '박마', 봉성면 '두동(後+洞)', 춘양면 '중마을' 등이 있다. 이들 촌락은 내성천 유역의 몰야면에서 주로 있다. ④ '공간관계-인문'의 구성(17.9%)은 남면 '윗재(上+고개)', 재산면 '동다리(東+橋)' 등이 있다. 이들 촌락은 명호면, 재산면, 춘양면에서 분포한다. ⑤ '공간관계-분포'의 구성(5.3%)은 명호면 '상보라(上+長)'가 있다.

이상 공간관계 촌락명의 지리적 개념별 구성은 창녕군과 남해군은 '공간관계-지역'이, 봉화군은 '공간관계-자연'이 다수이다. 이것은 창녕군의 '웃담'과 남해군의 '안마을'에서 보듯이 큰 촌락을 나누어 부르거나, 촌락의 2차적인 분할을 의미한다. 봉화군은 '뒷들'은 마을의 자연적인 위치를 설명하고 있다.

#### 4) 분포 관련 촌락명

고유명과 유형명이 모두 분포와 관련된 순수 분포촌락명은 3개군 모두 없다.

창녕군의 분포관련 촌락명의 지리적 개념별 구성을 <표 14>에서 보면, ① '분포-자연'의 구성(62.9%)은 계성면 '광계(大+육수)', 고암면 '큰바위', 남지읍 '한실(大+谷)', 대지면 '장창골(長+

표 14. 분포 관련 촌락명의 지리적 개념의 구성 (%)

구분 지역	분포- 자연	분포- 인문	분포- 공간	분포- 분포	분포- 지역	분포- 변천	합 계
창녕군	22(62.9)	6(17.1)	1(2.9)	-	6(17.1)	-	35(100.0)
봉화군	25(58.1)	11(25.6)	-	-	7(16.3)	-	43(100.0)
남해군	18(52.9)	12(35.3)	-	-	4(11.8)	-	34(100.0)
합 계	65(58.0)	29(25.9)	1(0.9)	-	17(15.2)	-	112(100.0)

남해군의 공간관련 촌락명은 48개인데, 그 중 고유명과 유형명 모두가 공간과 관련된 순수 공간관계 촌락명은 7개, 14.6%가 되어 3개 군에서 가장 많다. <표 13>에서 보면, ① '공간관계-공간관계'의 구성은 남해읍 '북면', 서면 '南上' 등이 있다. 이들 촌락은 남해읍과 서면에 분포한다. 그 외 ② '공간관계-지역'의 구성(43.7%)은 고현면 '안마을', 남해읍 '중촌', 서면 '中里', 삼동면 '아랫마을', 설천면 '윗모(上+모)' 등이 있다. 이들은 주로 고현면의 해안가에서 분포한다. ③ '공간관계-자연'의 구성(27.1%)은 고현면 '앞산', 남해읍 '南山', 서면 '서호(西+水)', 설천면 '內谷' 등이 있다. 이들 촌락은 토촌천이 흐르는 남해읍에서 많다. ④ '공간관계-인문'의 구성(12.5%)은 고현면 '북남치(北+군사)', 설천면 '동홍(東+활동)' 등이 있다. ⑤ '공간관계-분포'의 구성(2.1%)은 창선면 '西大'가 있다.

구)', 도천면 '깊이실(長+谷)', 영산면 '진동(長+지형)', 이방면 '長川', 창녕읍 '넓은골' 등이 있다. 이들 촌락은 대지면에서 분포한다. ② '분포-인문'의 구성(17.1%)은 길곡면 '삼거리', 대지면 '세거리(數+가로)', 유어면 '광정(大+亭)' 등이 있다. 이들 촌락은 유어면에서 다수 분포한다. ③ '분포-지역'의 구성(17.1%)은 대합면 '大洞', 성산면 '큰마을', 장마면 '큰땀' 등이 있다. 이들 촌락은 유어면에 분포한다. ④ '분포-공간관계'의 구성(2.9%)은 이방면 '거남(大+南)'이 있다.

봉화군의 분포관련 촌락명의 구성을 보면, ① '분포-자연'의 구성(58.1%)은 명호면 '광석(大+石)', 몰야면 '진골', 법전면 '深水', 봉성면 '대골(大+谷)', 봉화읍 '소지(小+池)', 석포면 '광평', 상운면 '깊우실(深+谷)', 소천면 '거내(大+川)', 재산면 '大谷', 춘양면 '거실(大+谷)' 등이 있다. 이들 촌락

은 봉성면과 소천면에 다수 있다. ② '분포-인문'의 구성(25.6%)은 명호면 '한티(大+고개)', 몰야면 '너다리(大+橋)', 봉성면 '세거리', 봉화읍 '너운티(大+고개)', 소천면 '소현(小+고개)' 등이 있다. 이들 촌락은 명호면에 다수 있다. ③ '분포-지역'의 구성(16.3%)을 보면 법전면 '큰말', 봉성면 '거촌', 재산면 '큰마을' 등이 있다.

남해군의 분포관련 촌락명의 구성을 보면, ① '분포-자연'의 구성(52.9%)은 고현면 '大谷', 남해읍 '深泉', 서면 '대정(大+식물)', 삼동면 '長谷', 창선면 '광천(大+川)' 등이 있다. 이들 촌락은 창선면에서 다수 분포한다. ② '분포-인문'의 구성(35.3%)은 고현면 '대사(大+寺)', 남면 '삼거리', 남해읍 '광포(大+浦)', 창선면 '長浦' 등이 있다. 이들 촌락은 창선면에 다수 있다. ③ '분포-지역'의 구성(11.8%)을 보면 상주면 소량(小+지역)', 삼동면 '長村' 등이 있다.

이상에서 분포관련 촌락명의 지리적 개념별 구성은 모두 '분포-자연'이 가장 많다. 창녕군의 '큰바위', 봉화군의 '진골', 남해군의 '광천'은 마을의 생성 전에 지명이 먼저 명명된 것을 알 수 있다. '분포-인문'은 창녕군이 상대적으로 적고, 봉화군과 남해군이 상대적으로 많은 분포를 보인다. 또 '분포-지역'은 3개군 수가 비슷하여 큰 지역차가 없다.

### 5) 지역 관련 촌락명

고유명과 유형명이 모두 지역과 관련된 순수 지역촌락명은 창녕군과 봉화군은 없고, 남해군에는 단지 2개 있다. 또 지리적 개념별 구성을 <표 15>에서 보면 창녕군은 지역과의 결합이 하나도 없고, 봉화군과 남해군에 각 4개, 2개 있다.

표 15. 지역 관련 촌락명 지리적 개념의 구성 (%)

구분 지역	지역- 자연	지역- 인문	지역- 공간	지역- 분포	지역- 지역	지역- 변천	합 계
창녕군	-	-	-	-	-	-	-
봉화군	2(50.0)	2(50.0)	-	-	-	-	4(100.0)
남해군	-	-	-	-	2(100.0)	-	2(100.0)
합 계	2(33.3)	2(33.3)	-	-	2(33.3)	-	6(99.9)

봉화군 촌락명의 구성을 보면, ① '지역-자연'의 구성은 법전면 '마그내(마을+川)', 상운면 '터꼭'이 있고, ② '지역-인문'의 구성은 법전면 '어로말거리(마을+가로)'가 있다.

남해군 촌락명의 구성을 보면, ① '지역-지역'의 구성은 삼동면 '洞里'가 있다.

이상 지역관련 촌락명이 어구조에서 앞에 두는 경우는 극히 소수이고, 뒤에 두는 경우가 압도적 다수여서 촌락생성 후에 명명된 촌락으로 보인다.

### 6) 변천 관련 촌락명

고유명과 유형명이 모두 변천과 관련된 순수 변천촌락명은 3개군 모두 없다.

창녕군의 변천관련 촌락명의 지리적 개념별 구성을 <표 16>에서 보면, ① '변천-지역'의 구성(72.2%)은 계성면 '새동네', 고암면 '新村', 길곡면 '새각단(新+각단)', 남지읍 '本洞', 대합면 '새담', 창녕읍 '새마(新+마)' 등이 있다. 이들 촌락은 유어면과 영산면에 다수 분포한다. ② '변천-인문'의 구성(13.9%)은 남지읍 '新田', 유어면 '진창(舊+시설)' 등이 있다. 이들 촌락은 계성면에 다수 분포한다. ③ '변천-자연'의 구성(11.1%)은 길곡면 '신덕(新+지형)', 유어면 '새내(新+川)' 등이 있다. ④ '변천-공간관계'의 구성(2.8%)은 대합면 '신안(新+內)'이 있다.

봉화군의 변천관련 촌락명의 구성을 보면, ① '변천-지역'의 구성(71.0%)은 명호면 '새말', 몰야면 '새마을', 봉화읍 '신기(新+터)', 춘양면 '고기(舊+터)' 등이 있다. 이들 촌락은 춘양면에 분포한다. ② '변천-인문'의 구성(19.3%)은 봉화읍 '신시장', 춘양면 '新峴' 등이 있다. 이들 촌락은 춘양면에서 다수 있다. ③ '변천-자연'의 구성(9.7%)은

표 16. 변천 관련 촌락명의 지리적 개념의 구성 (%)

구분 지역	변천- 자연	변천- 인문	변천- 공간	변천- 분포	변천- 지역	변천- 변천	합 계
창녕군	4(11.1)	5(13.9)	1(2.8)	-	26(72.2)	-	36(100.0)
봉화군	3(9.7)	6(19.3)	-	-	22(71.0)	-	31(100.0)
남해군	-	1(6.7)	-	-	14(93.3)	-	15(100.0)
합 계	7(8.5)	12(14.7)	1(1.2)	-	62(75.6)	-	82(100.0)

봉성면 '옛골(舊+谷)', 상운면 '원들(元+坪)' 등이 있다.

남해군의 변천관련 촌락명의 구성을 보면, ① '변천-지역'의 구성(93.3%)은 고현면 '신촌', 남면 '새마을', 삼동면 '본부락', 설천면 '새모(新+지역)' 등이 있다. 이들 촌락은 남면에 있다. ② '변천-인문'의 구성(6.7%)은 창선면 '신흥(新+활동)'이 있다.

이상 변천관련 촌락명의 지리적 개념 구성은 모두 '변천-지역'이 다수이다. 창녕군의 '새동네', 봉화군의 '옛골', 남해군의 '본부락'의 사례에서 볼 때, 마을이 탄생한 후 가장 최근에 명명된 촌락임을 알 수 있다.

#### 4. 결론

본 연구는 1/50,000 지형도에 나타난 자연취락명을 기준으로 하여 영남지방의 지리적 성격이 상이한 창녕군, 봉화군, 남해군 촌락명을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지명이 그 지역의 지리적 성격을 반영한다는 가정하에 지명이 포함하고 있는 주요 지리적 개념별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또 지명의 어구조에서 주요 지리적 개념별 구성의 결합관계를 구명하여 인간의 환경인식의 지역차를 분석하였다.

첫째 지리학의 주요 개념별로 보면 3개군 자연 41%, 인문 23%, 지역 17%, 공간관계 13%, 분포 5%, 변천 3% 순으로 많다. 촌락은 자연환경 위에 인문환경이 위치하고 있는 경관의 복합체로서 촌락명의 어구조도 자연과 인문개념이 가장 많다. 그 중 자연에서 인식된 촌락명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인문, 지역의 순으로 인식되어 명명되었다. 즉 모든 경관과 마찬가지로 촌락명도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의 과정 또는 결과가 주로 반영되었다. 특히 산지지역인 봉화군은 자연에서, 평야지역인 창녕군과 도서지역인 남해군은 인문에서 인식한 촌락명이 많아 지명에 의한 지역성을 알 수 있다.

둘째 지명의 어구조에서 보면, 前·後語가 환경인식 의미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前語는 촌락명의 작명으로 사용된 고유명으로서 인문환경, 공간관계, 분포, 변천 등의 동적개념이고, 각기 촌락의 문화경관 또는 촌락의 위치와 변천을 설명함으로써 촌락의 생성과 본질을 나타내고 있다. 後語는 분류명으로 사용된 유형명으로 자연과 지역 등의 정적개념이며, 각기 촌락의 자연환경을 설명하거나 또는 촌락공동체 표현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셋째 지리적 개념의 구성별로 보면 '자연-자연', '인문-자연', '자연-지역', '공간관계-지역' 순으로 다수이고, 주요 요소가 자연, 인문, 지역, 공간관계이다. 그 중에서도 자연 그대로가 인식되어 명명된 촌락명이 다수인데, 특히 산지지역인 봉화군에서 압도적 다수이다. 다음은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의 과정 또는 결과가 인식되어 명명되었는데, 평야지역인 창녕군이 상호작용의 과정, 도서지역인 남해군은 상호작용 결과가 상대적 다수여서 촌락명에 의한 지역차를 보이고 있다.

#### 註

- 1) 송보영·최형식, p.32에서 자연취락은 물리적 환경 변화가 적음
- 2) 총 자연촌락수 581개 중에서 1개 결합 70개(12.0%), 3개 결합 30개(5.2%), 결합관계가 모호한 26개(4.5%)를 제외한 455개(78.3%).

영남지방 지명에 관한 연구

- 3) 총 자연촌락수 708개 중에서 1개 결합 50개(7.1%), 3개 결합 67개(9.4%), 결합관계가 모호한 39개(5.5%)를 제외한 552개(78.0%).
- 4) 총 자연촌락수 348개 중에서 1개 결합 28개(8.1%), 3개 결합 16개(4.6%), 결합관계가 모호한 29개(8.3%)를 제외한 275개(79.0%).
- 5) 지리학의 주요개념 연구에서 ① 李縵은 연구기법, 축척, 분포, 지역, 인간과 자연, 공간관계, 변천, 자연지리, ② 金蓮玉은 분포, 지역, 인간과 자연, 공간관계, 변천, ③ 柳政夏는 연구기법, 분포, 지역, 인간과 자연, 공간관계, 변천, ④ 朴成燁는 자연과 인간, 공간관계, 분포, 지역, 변천, 등을 기본개념으로 추출하였는데, 본 논문에서는 인간과 자연, 공간관계, 분포, 지역, 변천 등 공통적인 5개 개념을 지리학의 주요 개념으로 선택하였음.
- 6) 인간의 내용에는 인간자체, 인간의 시설, 인간 사고와 활동 등의 인문 내용임
- 7) 김윤학, p.34 美谷, 美실에서 谷과 실이 동어어임. 강병륜, p.127 실은 谷에 대응.
- 8) 봉화의 촌락과 지명, 봉화군, 1996, p.50에서 바래미(海底)는 조개발견에서 유래
- 9) 李恒坤, p.31에서 지역을 말, 村, 里, 동네 등의 4가지로 분류하였음.
- 10) 강병륜, p.128에서 <이>는 지명에 후접하여 마을의 뜻을 나타냄
- 11) 남해의 지명, 남해문화원, 1990, p.154~157에서 모를 마을과 동의어로 씀.

金玉子, 1992. 江原道 地名의 類型別 分布에 관한 地理學的 研究 -洪川郡과 襄陽郡·東草市를 中心으로-,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南榮佑, 1996, "古地名「두모」研究", 지리교육논집, 36, 116-125.

송보영·최형식, 1984, "주거형태와 취락형태간의 문화적 상관성에 관한 연구 -한국자연 취락을 중심으로-", 환경연구, 5, 27-59.

신준영, 1988, 국민학교 지명 학습,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元學喜, 1982, "서울市の 同名攷", 지리학총, 10, 304-313.

李恒坤, 1986, 忠淸南道의 地名 研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李聖學, 1975, "韓國의 地名에 關한 研究", 경북대 논문집, 20, 53-66.

田京淑, 1979, 忠淸北道 地名의 類型分布에 관한 地理學的 研究 -鎭川郡과 丹陽郡을 中心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장호·신동선, 1995, "국민학교 교과서의 지명에 관한 연구", 지리학연구, 25, 1-22.

鄭鎭元, 1982, 韓國人의 環境知覺에 關한 研究 -村落名의 分析을 中心으로-, 지리학논총, 9, 59-79.

井戶歷三, 1976, "明治22年新町村名の研究", 地理學評論 49, 285-297.

De Blij, H. J., 1983, *Human Geography : culture, society and space*, John Wiley & Sons.

Tuan, Yi-Fu, 1976, "Humanistic Geography", *Annals, A. A. G.*, Vol. 66, 266-276.

文 獻

姜吉夫, 1985, 郷土와 地名, 정음사, 서울.

강병륜, 1997, 固有地名語 研究, 박이정, 서울.

金蓮玉, 1985, 韓國의 氣候와 文化, 이대출판부, 서울.

김윤학, 1996, 땅이름 연구, 박이정, 서울.

창녕지명사, 1992, 비사벌 신문사.

## A Study on Village Names of Youngnam Provinces : the Cases of Changnyeong-Gun, Bonghwa-Gun and Namhae-Gun

Park, Tae-Hwa\*

### (Abstract)

This is a study on village names in a plain region of Changnyeong-Gun, a mountain region of Bonghwa-Gun and an island region of Namhae-Gun. The three regions differ in geographical features. The data are based on 455 village names in Changnyeong-Gun, 552 village names in Bonghwa-Gun and 275 village names in Namhae-Gun found in the 1 : 50,000 topographic map.

The method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word structures of village names in the five basic concepts in geography : Man-Land (Natural Environment and Human Activities), Spatial Relation, Distribution, Region and Transition.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Naming of villages are related to Natural Environment(41%), Human Activities(23%), Region(17%), Spatial Relation(13%), Distribution(5%), and Transition(3%). Of these six factors, Changnyeong-Gun is relatively dominant in village names related to Spatial Relations, Region and Transition ; Bonghwa-Gun Natural Environment and Namhae-Gun Human Activities and Spatial Relations. But the three Guns are absolutely dominant in village names related to Natural Environment and Human Activities.

2. A village name is divided into the specific name part(given name) and the

generic name part(classified name). Names related to Human Activities, Spatial Relations, Distribution and Transition are more frequently found in the specific name part. Therefore, they are used as the given name of a village name. Whereas names related to Natural Environment and Region are more frequently found in generic name part, which means that they are used as the classified name of a village.

3. The word structure of a village name usually has two parts a frontal part(given name) and a rear part(classified name). The two parts have a particular pattern in the geographic concept when they are combined.

1) In the village names related to <Natural Environment> in their frontal part of the word structure, <Natural Environment(Natural Environment - Natural Environment)> is more frequently combined as their rear part in Bonghwa-Gun, <Human Activities> in Namhae-Gun and <Region> in Changnyeong-Gun.

2) In the village names related to <Human Activities> in their frontal part of the word structure, <Natural Environment> is more frequently combined as their rear part in Changnyeong-Gun, <Human Activities> in Namhae-Gun and <Region> in Bonghwa-Gun.

Accordingly, Man(Human Activities) - Land (Natural Environment) can be considered the

---

\*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영남지방 지명에 관한 연구

most important concept in the naming of villages, because the concept is most frequently used in the word structures of village names.

**Key words** : given name, classified name, basic concepts in geography, the word structure.